



[최저임금의 역습] 사용자도 노조도 승복 못하는 최저임금 사회갈등 뇌관으로 03



Economy

코스피	2082.48 (-4.18)	코스닥	674.79 (-6.38)
금리 (미국 3년)	1.43 (+0.01)	환율 (원/달러)	1179.30 (+0.01) (10일)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 6대 그룹 “비상경영”

삼성·SK·LG

日 수출규제에 대응책 마련 분주

롯데

한일 냉기류에 불매운동까지 휘청

현대차

10조 투자 GBC, 규제에 건립 난항

포스코

환경오염 여론 악화에 전전긍긍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본격화로 삼성·현대차·SK 등 국내 경제를 이끌고 대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 같은 대내외 규제에 국내 산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삼성과 SK, LG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며, 롯데도 한일관계 냉기류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10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 C)의 용지 매입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장 착공도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오염물질 배출 이슈를 마무리 짓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그

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등은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누구보다도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옛새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한 이 부회장은 당분간 경영진으로부터 매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 동시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영 전략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귀국 다음날인 13일에도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경영진을 소집해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출장 결과를 공유하면서 소재 수급 현황, 사업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 부진 만회를 위한 돌파구 모색과 신사옥 GBC 착공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최악의 부진을 겪은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차 출시로 라인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GBC 개발 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용지에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신사옥을 짓는 사업이다. GBC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돼 있는 계열사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현대차 화성연구소 찾은 이스라엘 대통령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정희선 수석부회장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넥소 절개차를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용지 매입 후 201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문턱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주력사 가운데 하나인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열흘 가까이 일본에 머물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신 회장은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사장단 회의(VCM)를 주재한다. 겹겹이 악재가 쌓인데다 불매운동 여파까지 맞으면서 휘청대는

롯데그룹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 회장이 어린 시절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친분이 있었을 정도로 국내 재계의 대표 '일본 톱'으로 불린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日 수출규제’ WTO서 논의... 실효성은 물음표

‘日 경제 회복’ 국제적 공론화 근본적 해결 방안되기 어려워 정부 외교적 대화부터 나서야

일본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정된다. 정부는 불합리한 무역 보복을 공론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WTO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 이사회는 WTO에서 각료회의를 제외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 정부가 최근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제기한 요청으로 안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WTO 제재가 최선이나는 데 있다. 사태 원인이 한일간 외교적 분쟁에 있음에도,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왼쪽)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나눈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한 설문조사에서 'WTO제소'를 대응책으로 꼽은 일본 전문가 10%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인 48%는 외교적 대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전경련 정봉호 국제협력팀장은 "일본 수출 규제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불거진 외교 문제"라며 "WTO에서 일본을 제재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역 분쟁 소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WTO 제소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정면 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다. 일본과 대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외교력 강화보다는 내부 단속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비판이다.

청와대가 최근 재계 간담회를 열고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데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SNS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허락없이 먼저 배포하면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간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고도 수출 규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한 숨 돌린 철강업계 고로 가동유지 ‘청신호’

현대제철 조업정지 ‘집행정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도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대해 열흘 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충청남도의 행정 집행을 중단시킨 가운데 비슷한 사정의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역시 고로 가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제철은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조업정지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앞서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고로의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앙행정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정심위가 이번 결정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의 고로 계속 가동여부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앞서 포스코는 블리더가 고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지자체에 청문절차를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청문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며 경북도의 경우 청문절차에 앞서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충남도와 같은 처분이 내려져 행정심판에 들어갈 경우 같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2030엔 카뱅이 ‘리딩뱅크’… 기존은행, 대반격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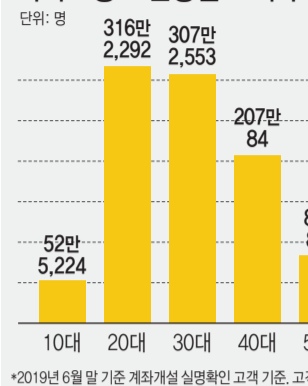
금융, 플랫폼이 된다

〈中〉은행권, 미래고객 전쟁

카뱅, 20대 고객 316만명 달해 30대도 307만명… 비중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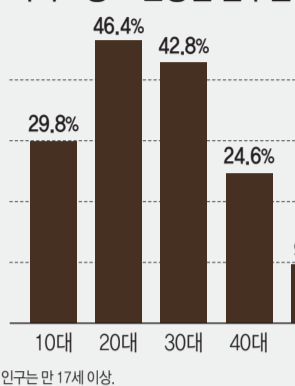
은행권, BTS 등 모델 내세우고 젊은층 대상 상품 줄줄이 선보

카카오뱅크 연령별 고객 수



*2019년 6월 말 기준 계좌개설 실명확인 고객 기준. 고객 연령대는 만 나이 기준, 인구는 만 17세 이상.

카카오뱅크 연령별 침투율



B

자료/카카오뱅크

번거로움의 최소화. 최근 은행권의 화두는 ‘90년생이 온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대변된 젊은 층의 생각과 행태였다. 비대면 활성화로 젊은 층의 금융거래가 점차 늘고 있는데다 2030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로 자리잡으면서다.

모바일로만 승부를 내겠다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1000만 고객 돌파라는 사실 자체보다 시중은행들은 카카오뱅크의 주요 고객이 2030이라는 점에서 긴장한다. 2030은 훨씬 고도화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 대형은행들

의 모바일 앱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를 선택했다. 이들은 복잡한 유용함보다는 카카오뱅크 앱을 하나의 놀이터이자 플랫폼으로 삼고 금융거래를 재미있고 간편하게 즐겼다.

◆20대, 두 명 중 한 명이 ‘카뱅’ 고객

2030세대만 놓고 보자면 은행권에서 리딩뱅크는 시중 대형은행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다. 인터넷뱅킹조차 번거로운 이들에게 모바일 온리(Only) 전략은 그대로 적중했다.

15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만 나이) 고객은 316만

2292명이다. 우리나라 20대 인구가 682만221명임을 감안하면 46.4%가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 20대 두 명 중 한 명은 카카오뱅크 고객인 셈이다.

30대 역시 카카오뱅크 고객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카카오뱅크의 30대 고객은 307만2553명으로 같은 연령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8%에 달한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사잇돌 대출과 전월세보증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카카오뱅크는 20~30대 고객을 중심으로 시장 지

배력이 확고하다”며 “이런 시장 지배력은 가파른 대출 성장으로 귀결해 높은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경제활동은 미미하지만 미래 잠재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역시 카카오뱅크가 주도권을 가져갔다. 카카오뱅크의 10대 고객수는 52만5224명으로 만 17세 이상 10대 인구 가운데 29.8%를 차지했다.

◆은행권, 2030 미래고객을 잡아라

시중 은행들도 2030 미래고객잡기에 나섰다. 은행권 광고모델은 아이돌 스타들로 채워졌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도 줄줄이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은 청춘 고객을 대상으로 ‘KB청춘마루’라는 브랜드를 내세웠다. 2018년 4월에 개관한 KB청춘마루는 미래고객 지원을 강조하는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윤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스고객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으며, ‘KB X BTS 적금’은 2000억

원이 넘게 판매돼 협업효과도 톡톡히 봤다.

신한은행은 역시 지난해 아이돌 그룹 워너원을 모델로 선정한 바 있으며, 워너원 멤버들의 얼굴을 담은 체크카드는 사전 예약만으로 5만좌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는 디지털뱅크 시장을 선도하는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우 박보검을 모델로 내세웠다.

NH농협금융의 경우 김광수 회장이 직접 금융지주 및 계열사 90년대생 직원 20명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 회장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기를 권하는 등 평소 조직에 젊은 생각을 전파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김 회장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간단함과 재미, 그리고 솔직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협금융의 혁신과 체질개선을 선도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소나기에 생긴 도랑 ‘폴짝’

서울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이 빗물이 고인 도랑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선, 스타트업 요람 이스라엘에 투자 확대

〈현대차 수석부회장〉

리블린 대통령, 전기차 연구소 방문

“이스라엘 스타트업-현대자동차 미래과제 더 큰 기회로 전환 가능”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스라엘과의 미래 자동차 산업에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 산업 연구·개발(R&D)의 심장부인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넥소 수소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량을 시승하고,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 시스템 등을 경험하는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차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기술을 체험했다.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이스라엘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산업 분야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이날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4단계의 자율주행 기

술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 기반의 넥소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또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 시스템’을 통해, 차량이 생체 신호를 감지해 진동·소리·온도·향기·조명 등을 조절해주는 감정반응 차량제어 기술을 경험했다. 이어 근로자 근력 보조 지원을 위한 ‘H-CEX 의자형 착용로봇’ 등 웨어러블 로봇 및 수소전기차 넥소의 미세먼지 정화 기술 시연과 차량 충돌 시험도 참관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면담에서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현대차는 자동차·안전·혁신과 같은 주요 미래 과제를 더 큰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가 몇몇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맺은 파트너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공동 개발한 기술 일부는 향후 양산차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연간 26만여대 수준(2018년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8년 이스라엘에서 3만8022대(14.2%), 3만5806대(13.4%)를 판매해 각 1, 2위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등 현지 기업에 대한 전략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에 설립한 개방형 혁신 센터인 ‘현대 크래들 텔 아비브’를 통해 지난해 인공지능업체인 알레그로.ai, 에너지업체인 H2프로, 드론업체 퍼셉토 등에 전략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6월에도 이스라엘의 첨단 스타트업인 엠디고에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 커넥티드카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美中 분쟁에 日 수출규제까지 안갯속

〉1면 ‘하루 하루가 살얼음…’서 계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계열사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 회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추가 확대 조짐이 감지되자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구 회장은 지난 11일 경기 평택 소재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을 방문해 흥순군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장 등과 회의를 갖고 그룹 내 소재 확보부터 개발 등 관련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

졌다.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은 LG 그룹 내 생산 혁신 핵심조직이다. 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별 필요 소재와 장비 등 제조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구 회장은 국내외 현안 점검과 동시에 미래먹거리 발굴과 인재 육성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악화된 대외환경 규제의 대응책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포스코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

면서 미세먼지 절감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자체의 환경 규제가 강화된 영향도 있다. 지자체는 지난 4월과 5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조업중지를 사전 통보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열어두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처분은 올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인데, 업계는 조업정지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는 조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10일 동안 고로를 멈출 경우 정상 가동까지 3개월 가량이 걸린다.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올해 실적에 치명타를 입는다.

/양성운 기자

“WTO, 안전상정 자체 물릴수도 있어”

〉1면 ‘日 수출규제…’서 계속

일본측 대표가 회의를 끝난 후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으로부터 WTO 규정 위반에 대한 항의나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즉각 일본에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지만, 일본측은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 요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합의 내용을 넘어선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WTO가 안전을 본회의에서 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만큼, WTO에도 안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 상정 자체를 물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일 정부가 무역분쟁을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인증서 갱신없이 평생 쓴다... KB의 '모바일 인증' 혁신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자체기술로 개발... 보안성 UP
보안카드·OTP없이 거래 똑딱
ARS인증으로 최대 5억원 이체
그룹 계열사서 이용토록 확대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KB국민은행이 'KB모바일인증서'를 선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6자리 비밀번호와 ARS인증으로 최대 5억원까지 이체가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은 15일 공인인증서로 인한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기술로 개발한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KB국민은행이 개발, 발급하고 보안성까지 책임지는 사설인증서다.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회원가입부터 신규 상품가입까지 모바일에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입출금통장 개설과 인터넷뱅킹 신규

및 KB모바일인증서 발급이 한번의 거래로 진행돼 가입 절차는 크게 단축됐다. 모바일에서 간단한 가입절차 이후 이체, 상품거래 등 KB국민은행의 풀뱅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로그인도 패턴이나 지문, 페이스 ID(아이폰 이용 고객) 등 고객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할 수 있다.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편의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전까지는 모바일 뱅킹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이체할 경우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했다. 반면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계좌비밀번호만으로 이체가 가능하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계좌비밀번호 및 간편비밀번호 6자리만으로 이체할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

계좌비밀번호 및 간편비밀번호 6자리와 ARS 인증을 통해 이체할 수 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 번 발급받으면 인증서를 폐기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발급받은 인증서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므로 미사용 인증서에 대한 고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국제청 연발정산이나 각종 정부민원서류 발급 거래, 모바일 대출 신청 등 공인인증서가 필수인 경우에도 KB모

바일인증서만 있으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을 KB금융그룹 내 계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일 금융그룹이라도 계열사별로 이용하는 인증서가 달랐다"며 "KB모바일인증서는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에서 검증된 사설인증서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모바일인증서는 휴대폰의 특수 보안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영국 보안업체인 트리스토닉사의 TAP(Trustonic Application Protection) 솔루션을 적용했으며, 인증서의 유효성과 비밀번호를 검증하는 알고리즘은 KB국민은행 자체 기술로 개발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저축은행중앙회-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청소년 콘텐츠 개발 등 금융교육 '맞손'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이하 청교협)는 15일 청소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저축은행업권의 금융교육에 활용할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금융교육 프로그램 관련 감사 지원 및 양성을 위한 연수지원 등 금융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축은행 업권도 청소년 등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회는 회원사인 저축은행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오른쪽)와 박홍신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이 15일 청소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니어 등 업계의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이중환전 NO... 위안화로 유학비 직접 송금”

NH농협은행 '위안화유학비송금' 고객 수요 반영... 당일 수령 가능

NH농협은행은 중국에 유학하는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을 중국 교통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위안화(CNY)로 직접 송금하는 '위안화유학비송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안화유학비송금은 중국 유학생 또는 중국에 유학하는 자녀가 있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내 대학교 등록금과 해외유학생 본인 거주목적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이용할 수 있다. 등록금고지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미국 달러로 송금한 후 위안화로 수령하는 방식 대비 위안화로 직접 송금해 이중환전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국내 2700여 교통은행 전지

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영업일 3시 이전에 송금하면 중국에서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상품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해외 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객은 전신료 8000원(해외중계 수수료 별도)만 부담하면 중국에 송금할 수 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위안화로 직접 중국에 송금하기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교통은행과 함께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편리하고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카카오뱅크 천만고객 돌파 기념 '5% 예금 특판'

21일까지 사전 응모고객 대상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1000만 고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일주일 '카카오뱅크 천만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첫날인 월요일(22일)에는 카카오뱅크 1년 만기 예금의 2.5배인 연 5%(세전) 이자를 주는 예금(만기 1년)을 1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판 예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가입 가능하다.

23일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CGV 영화 티켓 1만장을 증정한다. 24일에 '26주적금' 새로 개설한



고객에게는 만기 달성시 쌓인 이자의 두 배를 준다.

25일은 5000달러 이하 해외 송금 고객에 한해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을 모두 되돌려주는 '해외송금 비용 완전 무료' 이벤트를, 26일에는 간편이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여 명에게 나이키 에어맥스를 증정한다.

주말인 27, 28일에는 하루 6만5000명에게 카카오T 택시 5000원 할인 쿠폰 등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첫 급여이체 고객에 '갤럭시S10' 등 경품

대상자 자동 응모, 1125명에 혜택

KB국민은행은 오는 10월 말까지 신규 급여 이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이체에 대한 낯선 고민~, KB와 함께라면 낯선 선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처음 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1등(5명) 갤럭시 S10 128GB 플래밍고 핑크 ▲2등(20명)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3등(100명) 메가박스 2인 모바일 일반관람권(2D) ▲4등(1,000명) 스타벅스 카페인메리카노 모바일상품권 등 총 1125명에게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당첨자는 오는 11월 20일 국민은행 홈페이지, KB스타뱅킹, 리브(Lii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모바일서 대리인 지정하세요"

'솔 위임장' 서비스 시행 통장 인감변경 등에 도입

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솔(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솔 위임장 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업무처리당사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솔 위임장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 '솔'에 접속해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진행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먼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솔 위임장 서비스 시행으로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현장경영 통한 과감한 행보... 5G·유료방송 판 흔들다

하현희 LGU+ 부회장 취임 1주년

평균 3~4일에 한번꼴 현장방문
넷플릭스 제휴로 IPTV 가입 ↑

속도 1위 광고 등 공격 마케팅
5G 가입자 점유율 29% 넘겨
CJ헬로·화웨이 리스크는 숙제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LG유플러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업계에서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전략통'이라는 이미지가 담긴 과감한 결정으로 전투력이 올라갔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기회로 3위 사업자의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 리스크'와 CJ헬로 인수 등 과제도 남아있다.

"5G 가입자 점유율을 30% 이상 확보하겠다".

지난 10일 하 부회장은 5G 상용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5G 상용화로 통신 패러다임이 바

뀌는 올해를 기점으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고착된 통신시장 점유율을 뒤집겠다는 선언이다.

LG유플러스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계기로 과감해지고 있다. CJ헬로 인수 추진과 함께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맺고 콘텐츠 공급

제공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내 시장 잠식에 나서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로, 넷플릭스와의 제휴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결단이다. 결과적으로는 가입자 증대 등 시너지 효과를 냈다. 넷플릭스 카드가 통해 올 1·4분기 LG유플러스 IPTV 'U+tv' 가입자는 13만명 증가했다. CJ헬로를 인수하,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781만명(24.43%)으로 KT 계열(30.86%)에 이어 단숨에 2위 사업자가 된다.

5G 상용화 이후 요금제 발표도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동통신 3사의 가상현실(VR) 서비스 비교 체험 행사를 열고, 5G 속도 자사 1위 광고 등으로 경쟁사를 당혹케 하는 공격적 마케팅도 이어갔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고착화 된 이동통신시장의 5:3:2 점유율 구도를 깨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자체 집계 결과, 지난달 말 기준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 점유율은 29%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3개월 간

번호이동 시장 신규 가입자 점유율도 약 31%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경영지표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1·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4%, 3.7% 늘었다.

이 같은 선제적 결정은 하 부회장의 '현장 경영'에서 나왔다.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가 하 부회장의 지론이다.

하 부회장은 취임 이후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을 열심히 찾아 다니려 한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얻은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구상을 마치는 대로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취임 3주차인 지난해 8월부터 고객센터, 기지국, R&D센터까지 그간 약 43회의 출장 스케줄을 소화했다. 평균 3~4일에 한번 꼴로 현장을 방문한 셈이다.

앞으로의 과제도 산적하다. 우선 CJ헬로 인수를 무사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알뜰폰이 인수 변수로 떠올랐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알뜰폰 생태계를 위해 CJ헬로의 '헬로 모바일'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웨이 리스크' 또한 장기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언제든 국제 정세에 흔들릴 위기가 올 수 있다.

하 부회장은 하반기에는 흔들림 없이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 등 3대 핵심 가치로 5G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5G 인빌딩 구축을 하고 연내 8만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한다. 5G 서비스 분야에서는 구글, 엔비디아 등과 제휴해 클라우드 VR 게임과 같은 콘텐츠도 확보할 예정이다. 기업 간 거래(B2B) 또한 스마트 팩토리, 드론, 자율주행 사업을 지속 강화시켜 미래기술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여 업계의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건강식품 구매땀 통신비 최대 2만원 할인

SKT, 8개 건강 식품사와 제휴
혜택 강화 된 'T건강습관' 출시

걷기만 하면 통신비 혜택을 제공하던 SK텔레콤의 'T건강걷기'가 건강식품을 구매하면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더했다.

SK텔레콤은 8개 건강 식품 제휴사와 손잡고 고객에게 1건당 2000원에서 2만원까지 월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건강습관×AIA Vitality' (이하 'T건강습관')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T건강습관'에 참여하는 제휴사는 아이허브, 인테이크, 다노샵, 자연이랑, 스포맥스, 레이델, 콜린스그린, 오아시스마켓 등 8개 회사다. 비타민, 영양제, 간편건강식, 신선식품 등 식품 구매 시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사 별 조건에 맞는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면 예상 통신비 할인 금액을 T건강습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모델이 'T건강걷기' 제휴사 상품과 혜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수 있다. 통신비 혜택은 구매 후 두 달 뒤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들도 15일 이후 앱을 업데이트 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기아차 '2020 호주오픈' 볼키즈 모집

기아자동차가 내년 1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2020 기아자동차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이하 2020 호주오픈)'에서 활약할 볼키즈를 모집한다.

'볼키즈'는 테니스 경기 중 경기장 내에 위치해 아웃된 볼의 처리, 볼의 수급 등 경기를 보조하는 유소년을 말한다. 단순한 경기 보조의 개념을 넘어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의 일원이다.

호주오픈 메인 스폰서인 기아차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0명의 대한민국 대표 볼키즈를 선발해 호주오픈 참여와 현지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

상은 기아차를 보유한 고객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2~15세의 유소년이다. 지원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다. 기아차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영어능력 평가, 2차 실전능력 평가를 실시해 최종 20명을 선발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볼키즈는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호주오픈의 일원으로서 경기에 직접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 현지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유소년들을 위한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AI로 에너지 효율 잡았다

휘센 AI 듀얼베인 시스템 에어컨
싱글타입 중 최초로 1등급 취득
냉방 20%, 난방 효율 37% 높여

LG전자 에어컨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달성에 성공했다.

LG전자는 15일 '휘센 인공지능 듀얼베인 시스템 에어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 에어컨은 지난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된 후 싱글타입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최초로 1등급을 취득한 제품이다. 냉방 효율 20%, 난방 효율 37%까지 높였다. 인버터제어와 R1압축기, 고집적 열교환기 등 최신 에너



LG전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한 휘센 인공지능 듀얼베인 시스템 에어컨을 출시했다. /LG전자

지 기술을 집약했다.

듀얼베인으로 6가지 공간맞춤기류도 제공한다. 실내기에 설치된 4개 베인과

별도로 제품 내부에도 4개 베인을 추가한 형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기술에 부여하는 NET 인증도 받았다.

인공지능(AI) 기술도 탑재했다. 바닥과 실내기 온도로 공간 온도를 계산해 균일하게 난방을 해준다. 사람을 향해서는 직접 바람을 보내지 않고, 사람이 없으면 알아서 동작을 멈춘다. 스마트폰 원격 제어와 에너지사용량 확인도 가능하다.

공기청정 기능도 45.7평이나 된다. PM1.0센서로 극초미세먼지도 잡아낸다. 프리필터를 따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해 관리 편의도 높였다.

/김재용 기자 juk@

LG U+ "폰 파손시 앱 통해 당일 보상 받으세요"

블록체인 접목 간편 청구 앱 선택
KB손보와 보험절차 실시간 공유

LG유플러스는 오는 17일부터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 보험 관련 절차를 줄이고 편의를 개선한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이용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사고 당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앱에서 보상받을 휴대폰을 선택해 사고 당일 휴대폰 수령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휴대폰 분실·파손 시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내역과 영수증 등 보상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사진으로 찍은 후 앱이 홈페이지에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



모바일이 블록체인 기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간편 청구 앱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 휴대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LG전자, KB손해보험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기술은 상호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동기화한다.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개발·구축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수령도 빨라진다. 보험 청구를 위한 수작업 단계와 서류 심사 기간이 줄기 때문이다. 영수증 조작 등 서류 위변조 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보상 접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서술형으로 작성하던 13가지 사고 접수 문항은 선택형으로 8가지만 작성하면 된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 LG유플러스에 등록된 카드번호나 은행계좌로 앱 로그인이 가능해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에서도 다른 휴대폰을 통해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신료를 은행이체로 납부하는 고객은 등록된 은행계좌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된다. /김나인 기자

‘베트남 점유율 1위’ LS산전, 동남아 전력 공략 박차

베트남 ‘KOSEF 2019’ 참가
민간기업 최대 12부스 전시

스마트전력 솔루션 역량에
신재생 발전 솔루션 앞세워
베트남 넘어 동남아 공략 속도

LS산전이 동남아 공략을 본격화한다. 베트남 시장을 발판 삼아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LS산전은 17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전(KOSEF 2019)’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LS산전은 전시회에 민간기업 최대인 12부스 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베트남 전력 토털솔루션 공급자’를 콘셉트로 108㎡ 규모로 조성됐다.

LS산전은 전시회에 직류와 교류 등 스마트 전력 통합 솔루션 역량을 선보



LS산전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전력에너지전을 계기로 동남아 진출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LS산전

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맞춤형 플랫폼 ▲스마트 전력 솔루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솔루션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꾸렸다.

DC/AC 제품 솔루션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서거차도에

조성한 ‘직류 배전 에너지자립섬’과 DC C 1500V 배전용차단기(MCCB), DC 1000V/1500V급 릴레이, DC 1500V 4000A급 개폐기 등도 공개했다.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한 차세대 PCS 제품과 이동형 변전소 등도 함께한다. 전력변환 핵심 부품인 펌(PEB



LS산전이 베트남 전력에너지전에 출품할 예정인 직류 전용 전력기기. /LS산전

B)을 용량 단위로 모듈화해 스마트 독립 운전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는 신재생 발전시스템 분야 토털 솔루션 역량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동형 변전소와 대용량 전력 유연 송전시스템, 차세대 스마트배전 솔루션 등도 함께 전시한다.

LS산전은 이같은 기술력을 강조하

며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전역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LS산전은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을 50% 가까이 점유했다. 1997년 일찌감치 LSIS-VINA를 설립했으며, 호찌민에도 LSCV를 추가 설립해 2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올 들어 하이퐁 전선 소재 공장을 증설하고 호찌민에 중전압 케이블 라인을 증설하는 등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LS산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전력 기술과 신재생 발전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메이커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각인 시킬 것”이라며 “베트남 저압 전력기기 점유율 목표적 1위를 교두보로 동남아 전력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현장에 스마트 워크 플랫폼 도입 태블릿 PC로 각종 캐빈업무 한눈에

업무효율 개선 에이탭 시스템 도입
4000여 승무원에 태블릿 PC 지급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들이 새롭게 지급받은 태블릿 PC를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캐빈승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워크 플랫폼인 ‘에이탭(A-tab)’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이탭 시스템은 캐빈승무원들이 태블릿PC를 통해 업무 관련 정보 및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워크 플랫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 내로 4000여 명의 캐빈승무원에게 태블릿 컴퓨터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캐빈승무원들은 비행 전에 이탭 시스템을 통해 비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업무 매뉴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비행 관련 보고서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기내 서비스 관련 편의성 기능 등을 확대해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더욱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새로운 에이탭 시스템을 시험해본 신선 해선 선임승무원과 조민진 승무원은 “무거운 매뉴얼 등 비행 관련된 서류 대신 에이탭을 들고 다니게 되면, 부피가 줄어서 짐을 훨씬 간편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며 “또한 비행 관련된 모든 정보가 미리 에이탭에 업데이트되어 있어서 비행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화면 끊김 최소화’ 게이밍 모니터 선풍

삼성전자 ‘CRG5’ 27형 국내 출시
주사율 240Hz … 지싱크 호환 가능



삼성전자는 주사율 240Hz 게이밍 모니터를 국내에 출시한다. 엔비디아 지싱크도 지원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주사율 240Hz 게이밍 모니터를 국내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15일 CRG5 27형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고가는 43만 원에 책정됐다.

신형 모니터는 240Hz 래피드커브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1초당 240번 출력해 매끄러운 화면을 보여줄 수 있으며, 1500R 곡률 커브드 스크린으로 몰입감도 높여준다.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도 가능하다. 빠른 화면 전환에서도 끊기거나 찌그러진 현상을 최소화해준다.

광시야각을 지원해 어디서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 명암비도 3000:1이나 된다. 커브드 VA 패널을 사용했다. 다양한 출력 모드도 있다. 게임모드와 가상 표적 기능, 아이세이버 모드와 플리커 프리 등이다. /김재용 기자

카페서 충전… 현대오일, 미래차 연료사업 진출

중앙제어, 차지인과 공동구축 협약
하이브리드 스테이션 컨소시엄 구성
내년까지 전국 10곳에 충전기 설치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한환규 영업본부장, 신상희 중앙제어 대표, 최영석 차지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중앙제어는 국내 1위의 전기차 충전기 제작기업이며 차지인은 충전기 운영 전문기업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스테이션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속초 소재 주유소와 대형 소매점 10곳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발생하는 운영 수익은 세 개 회사가 합의한 비율대로 나눈다. 일정 기간 시범 운영 기간이 지나면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2300개 자영 주유소에 수익모델을 전파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만6000대인 전기차 대수는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5% 증가해 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지난 12일 서울 중구 현대오일뱅크 서울사무소에서 최영석 차지인 대표, 한환규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장, 신상희 중앙제어 대표(왼쪽부터)가 협약식을 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추정된다. 반면 충전기는 관공서와 공영주차장 등에 주로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이 이동 중에 쉽게 들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도로마다 판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정유사 참여가 필수다.

수도권 일부 직영사업장에만 충전기를 운영 중인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해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거점 도시 내 대형 마트와 카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도 충전기를 설치·운영한다. 20, 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 운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서다.

9월부터는 차지인 현재 운영 중인 전기 충전기에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차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호 규제 샌드박스 사업’ 대상 기업으로 전국에 1300개의 전기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전기차 운전자들을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확보,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SK브로드밴드, 세계최초 2.5기가 케이블모뎀 개발 성공

총 5개 포트 제공, 다양한 단말기 수용

SK브로드밴드는 세계 최초로 2.5기가(Gbps)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케이블모뎀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블모뎀은 HFC망에 인터넷과 IPTV를 제공하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광동축혼합망(HFC) 기술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로 구성된 망을 이용해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전에는 최대 500메가

비피에스(Mbps)까지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이번 케이블모뎀 개발로 최대 2.5기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닥시스(DOCSIS, HFC망 통신을 위한 표준) 3.1 기술을 적용해 1기가 속도제공 케이블모뎀을 개발한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2.5기가 속도제공 케이블모뎀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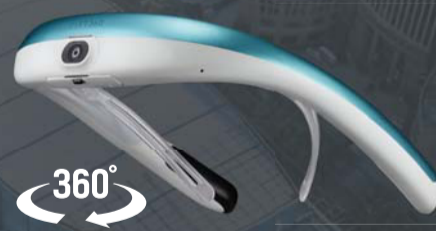
이 케이블모뎀은 기존에 1기가 4개 포트에 추가로 2.5기가 포트까지 총 5개

의 포트를 제공한다. 다양한 단말기를 수용할 수 있어 집안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여러 단말기를 사용하는 통신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아울러 상향 대역폭을 기존 100Mbps에서 500Mbps로 향상시켜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1기가 서비스를 사용해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CMTS(HFC 망장비) 연동시험, 주파수 재배치,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내년 HFC 2.5기가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lkni@

내가 있는 곳을 360도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KT 5G 리얼 360



360 카메라 FITT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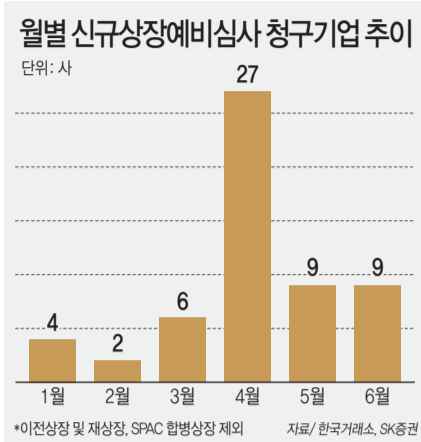
영상, 음성, 채팅까지 초고속 5G로 실시간
경험을 360도로 나누는 [리얼 360 영상통화]
인정적인 모바일 라이브로 360 영상을
마음껏 즐기는 [리얼 360 라이브]

이것은 360도로 세상을 마음껏 둘러보는 당신만의 능력
웨어러블 360 카메라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을
초고화질로 보고 즐기며 소통하다

당신의 초능력 **kt 5G**

IPO 슈퍼워크? ‘새내기株의 배신’... 증시 되레 발목

이번주 코원테크 등 6곳 수요예측
상반기 상장 18곳 중 주가상승기업
웹캐시·에코프로비엠 등 4곳 불과



이번 주 6개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슈퍼워크’가 될 전망이다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새내기주’의 주가가 부진해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슈프리마아이드, 한국바이오젠, 덕산테크피아, 세경하이테크, 그린플러스, 코원테크 등 총 6개사가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

지난주에도 대모엔지니어링이 9일에서 10일까지, 윙링스가 10일에서 11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다. 또 현재 코스닥 시장에 28개 기업이, 코스피에서 3개 기업이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다.

◆새내기주 주가 하락에 IPO 우려 증폭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

한 교육업체인 아이스크림에듀의 주가가 공모가인 1만5900원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핀테크 시장의 ‘대어’이자 코스닥 시장 기대주로 관심을 모은 세틀뱅크도 상장 첫날인 지난 12일 시초 대비 2100원 오른 5만16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상장 이틀째인 이날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 같은 주가 하락세는 올해 상반기에 두드러져 상반기 IPO 기업 중 시초 대비 주가가 상승한 공모주는 15일 기준 상반기 상장한 18개 기업 중 웹캐시, 천보, 컴퍼니케이, 에코프로비엠 등 4개 종목에 그쳤다. 또한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가 낮은 기업도 15일 기준 9개 종목에 달한다.

상반기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신규 상장했지만 같은 업종에서 IPO를 준비하던 여러 기업이 상장을 포기했다”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증시 흐름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우리도 주가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새내기주의 주가가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부진하면서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IPO 시장이 분주해졌지만 지난 4월 27개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가 물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5~6월 상장예비심사 청구건수는 각각 9건에 그쳤다”며 “하반기 IPO 시장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나 연구원은 이어 “수요예측, 공모청약경쟁률, 상장 후 수익률 흐름이 연초 대비 약해졌다”며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기업이 신규 상장했는데 하반기부터 기술력 검증에 많은 시간이 투

입돼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계획 중인 기술성장기업들의 최종 상장완료 시점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올해 ‘인보사 사태’로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상반기 새내기주 중 마지막으로 코스닥에 합류한 압타바이오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영향을 받았다.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장기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여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한 기업의 관계자는 “최근 증시에서 신규 상장 기업의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만큼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IPO시장 상반기보다 개선 기대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IPO 시장에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추진하면서 2분기 주춤했던 IP

O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 것이라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IR큐더스 이진영 수석은 “올해 IPO 시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수요 예측에 성공하며 활기차게 시작했지만 2분기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며 “하반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IPO를 추진할 예정으로, 공모규모가 작았던 지난해에 비해 더 큰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IPO 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빅데이터플랫폼 기업 등도 포함돼 업종 다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며 “기업가치가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녹십자웰빙 등 상반기 없었던 대어들의 상장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만 올해 1분기 상장을 계획하던 바디프랜드와 흠플러스트리츠 등이 상장을 철회했고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호텔롯데 등 대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상장을 연기해 대어로 꼽히는 기업 공개가 거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금호산업, 순천에 20년만의 새 아파트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청약시작

금호산업은 지난 12일 문을 연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견본주택에 개관 3일간 2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5일 밝혔다.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는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85번지 일원에서 지하 1층, 지상 최고 16층, 6개동 총 4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가구 순천에서 희소한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60만원대로 인근 분양 단지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2회 분납(1차 1000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60%) 무이자로 진행된다.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청약접수는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인터넷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며, 당첨자 대상 정당계약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제기준)

구분	2018년	상반기	하반기	2019년	5월	6월	보유잔고
주식	△6,678	△3,900	△2,778	5,225	△2,917	244	559,848
채권	15,625	12,021	3,604	10,939	7,076	5,801	124,540
합계	8,947	8,121	826	16,164	4,159	6,045	684,388

*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액 ‘사상최대’

금감원, 주식은 순매수 전환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순투자자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상장채권 보유가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인상장주식 2440억원을 순매수해 한 달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코스피시장에서 5500억원 규모로 사들였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3100억원 가

량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국이 각각 2조원, 3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반면 유럽과 중동은 각각 1조5000억원, 100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의 순매수 규모가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고, 미국과 홍콩이 각각 3000억원씩 사들였다. 반면 영국은 1조원 규모로 순매도에 나섰다. 캐나다와 아일랜드도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바닥찍은 네이버 반등은 언제쯤?

영업익 30% ↑ ‘핑크빛’ 카카오

네이버 영업이익 1438억 42.6% ↓
4년간 최저... 향후 전망도 엇갈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의 매출이 4년간 분기 실적 중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 최저치를 기록하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카카오는 2분기에 성장세를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주가는 올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카카오 주가는 12일에도 전날보다 0.77% 오른 13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2분기 실적 중 최저 전망

네이버의 2분기 성적은 자회사인 라인(LINE)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따른 적자로, 2분기 최저가 될 것이라 전망이 잇따르면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증권사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 네이버는 2분기 매출액 1조5800억원, 영업이익 18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2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년간 분기 실적 중 최저치이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이를 더 밑돌 수도 있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희비

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은 42.6% 감소한 143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실적은 2분기 광고 성수기 효과와 거래대금 증가로 양호하지만 라인의 공격적 투자로 연결 기준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라인의 투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어서 네이버의 연결기준 실적 부진 역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라인이 진행한 300억엔 규모의 송금 캠페인 결과도 가입자 비중이 높지 않아 일본 간편결제·송금시장 침투는 예상 대비 느릴 것”이라며 “네이버페이 거래대금은 양호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익화 방안이 부족해 향후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2분기에 실적 바닥을 확인한 후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 1546억원을 기록해 라인 비용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실적 저점을 찍을 것”이라며 “3분기 이후 대규모 마케팅은 제한되고 광고 성장이 지속되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 영업이익 30% 증가 기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는 2분기 7350억원 매출에 340억원 영업이

카카오 매출액 7413억 26% 올라
3분기 특비즈 매출 50% 성장 전망

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은 광고 매출 증가와 멜론, 카카오페이 성장 등으로 영업이익이 최대 3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한 7413억원, 영업이익은 31.4% 늘어난 36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카카오톡 광고, 선물하기 등 특비즈 매출액은 광고 성수기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4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은 486억원, 영업이익은 314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전 분기 거래액 10조원을 기록했던 카카오페이의 거래액 증가로 플랫폼 부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용해온 신규 광고상품인 ‘톡보드’ 부문에서 3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에도 핑크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종원 카카오 사업전략팀장은 6월 26일 ‘톡비즈 세미나’에서 “3분기 안에 톡보드를 오픈 베타 테스트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년 대비 특비즈 매출 5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채윤정 기자

롯데, GS 손잡고 유화 합작사 세운다



2023년까지 8000억원 공동 투자
연간 매출 1조·영업익 1000억 기대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가 합작회사를 세우고 8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사업 투자에 함께 나선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얼에서 양사 대표이사 간 비스페놀A(BPA) 및 C4 유분 제품을 생산하는 합작사 '롯데GS화학 주식회사' (가칭)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올해 하반기 합작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롯데케미칼이 51%, GS 에너지가 49%의 지분을 소유한다.

신규 합작사는 2023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BPA 제품 20만톤(t)과 C4 유분 제품 21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기대되는 연간 매출액은 1조원, 영업이익은 1000억원이다. 아울러 77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BPA는 전기·전자제품, 의료용 기구 및 자동차 헤드램프 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C4 유분은 탄화수소 혼합물로 추출과정을 통해 합성 고무 원료인 부타디엔, 인조대리석 원

료인 삼차부틸알코올(TBA)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각사의 사업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롯데케미칼은 폴리카보네이트의 생산 원료인 BPA를 합작사에서 받아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존 C4 유분 사업도 확장할 전망이다.

GS에너지는 자회사인 GS칼텍스를 통해 합작사가 생산할 제품의 생산 원료인 프로필렌, 벤젠, C4 유분 등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석유화학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는 "석유화학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장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롯데케미칼의 역량을 바탕으로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새로운 사업의 시너지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는 "정유·석유화학, 자원개발, 전력·집단에너지 등 기존 핵심사업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투자를 모색해 오고 있다"며 "이번 합작사업이 에너지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캠코

국유재산 아이디어 공모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9월 16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캠코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이 효율적인 개발·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이를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반영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지난해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통해 발굴된 유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개발 여건을 고려한 59개소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이다. 일반인 부문과 전문가 부문을 구분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 16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한 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캠코는 응모작 중 실무자 평가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총 16건을 선정해 6900만원 상당의 시상금과 부총리, 캠코 사장 상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중 캠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아이디어를 국유재산 개발과 활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빅데이터경제 걸맞은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시급

개인정보법 개정 토론회

금융업, 빅데이터 도입률 높은 수준
정보 주체 통제권 강화 필요성 강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가 금융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직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완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여신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사가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고객 생애주기에 맞는 신상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오픈 API를 구축해 제휴기업과 고객의 신용 데이터를 공유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금융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32.9%로 전 산업군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엄격한 국내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이유다.

◆'빅데이터 경제'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필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산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기관의 다원화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감독기능을 저해한다고 본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인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에 관한 감독기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으나 국회의원의 관심부족과 공정사태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의 위원회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돼 있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가 향후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또 금융권의 데이터 경제가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정보 관리 등을 의무화 하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EU GDPR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삭제권,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설명의무 및 정보 주체의 거부권 등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 현

행법이나 개정안은 데이터 이동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보 주체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보장되는지의 여부와 시장경쟁에 있어서의 영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산업 주체로서 리스크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또한 실질적인 데이터 산업의 주체로서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오픈 API를 공유하는 등 고객 데이터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고객 데이터에 대한 관리 소홀, IT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험, 금융범죄 등이 상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단계별로 고객 동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 주거 상품' 관심

까다로워진 조건에 수요자 시선집중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틈새 주거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청약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아끼는 분위기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15일 "청약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유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 상품에 몰리고 있다"며 "청약통장은 꼭 써야 하는 아파트에만 쓰게 되면서 일부 단지에 청약통장이 집중되는 돌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지구 L-1블럭(목감동 39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목감역 지

음재파크뷰'는 36~40㎡, 154실 규모로 현재 분양 중이다.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2억원 초반대 분양가로 중도금 무이자 제공된다.

덕진종합건설(주)은 8년 임대아파트 '광양의 봄 플러스' 59~75㎡, 496가구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 청약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등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주택 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청약통장 필요없는 틈새 주거 상품 주요 분양〉

단지명	위치	총세대수(실)	전용면적(㎡)	건설사
목감역 지음재파크뷰	시흥시 목감지구 L-1BL (목감동 397번지)	154	36~40	도시공감
광양의 봄 플러스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55-48번지	496	59~75	덕진종합건설(주)
충장 유탑 유블레스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68-1번지	480	29~84	유탑건설 유탑엔지니어링
웅천 퍼스트시티	전남 여수시 웅천동 1868-2번지	330	25~58	아이엠지건설(주)
브라이트 지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849	29~59	GS건설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충장 유탑 유블레스' 29~84㎡, 480실도 광주광역시 동구수기동 일대에서 분양된다. 이번 분양에서는 입주 시점에 일반분양과 이사 걱정 없는 4년 전세 전환(일부 타입 제외)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사인 유탑디앤씨가 분양 시 전세 전환 보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은 4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남 여수 웅천동에서 분양하는 '웅천 퍼스트시티' 25~58㎡, 330실도 실거주와 임대, 숙박영업이 가능한 트랜스하우스로 조성된다. 트랜스하우스는 개별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분양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출연체율 연속 상승세 중소·가계신용 두드러져

국내은행의 대출연체율이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1%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5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 1조2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3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55%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높아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韓日 경제전쟁에... 속 끊는 롯데, 오늘부터 사장단회의

신동빈 회장 주재로 닷새간 회의
10박11일간 日 출장 마치고 귀국
현지 기류 등 관련 메시지 '주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롯데그룹이 16일부터 5일간 신동빈 회장 주재로 올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16~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올해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 회의)을 주재한다.

롯데 각 계열사 대표와 지주사 임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VCM은 16~19일 식품, 유통, 화학, 호텔 등 롯데그룹 내 4개 사업 부문(BU)별로 사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20일

에 우수 실천사례를 모아 신 회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상·하반기 사장단 회의는 롯데그룹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했지만, 이번

에는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신 회장이 최근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현지 정·관·재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던 지난 5일 일본으로 출국해 10박 11일간의 출장 일정을 소화한 뒤 15일 오전 귀국했다.

신 회장은 일본 출장 중 노무라증권과 미즈호은행, 스미토모은행 등 롯데와 거래하는 현지 금융권 고위 관계자와 관·재계 인사들과 만나 현지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에 직접 연관은 없지만, 유니클로, 무인양품, 롯데아사히주류 등 일본 기업과 합작사가 많아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 분석이다. 유니클로는 롯데쇼핑이 49%, 무인양품은 롯데상사가 40%,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태일의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결산 설명회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불매운동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롯데는 상당한 규모의 차입금과 투자를 한국보다 금리가 낮은 일본 금융권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금융규제에 나설 경우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출장 중 일본 내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다"며 "이번 VCM에서 최근 한일 양국 관계와 관련해 본인이 파악한 내밀한 현지 기류를 계열사 사장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애니·웹툰 등 韓 콘텐츠 사러 왔어요” 넷플릭스 등 글로벌 큰 손 한 자리에

러시아에서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프로그램 채널인 CTC Kids 디렉터로 일하는 엘레나 수크하노바 씨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국제콘텐츠마켓 SPP(서울 프로모션 플랜)에 참석해 CTC Kids에 방영할 한국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다. 에듀테인먼트는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교육용 콘텐츠에 오락성을 더해 게임을 하듯이 즐기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엘레나 씨는 들뜬 표정으로 “3일간 매일 20개의 미팅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일정을 셀러(Seller·판매자)와 미팅으로 꽉 채웠다. 엘레나 씨는 “몇몇 한국 작품들은 정말 멋졌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작품을 더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한국에 왔다”며 “내년에도 SPP에 참석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서울 남산 힐튼호텔에서 국제콘텐츠마켓(SPP)을 열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 올해 19회를 맞았다.

SPP는 애니메이션과 웹툰을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의 판매 및 구매, 공동제작, 투자유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즈니스 장이다. 올해는 넷플릭스, 니켈로디언, 유쿠 등 해외 유명 기업들이 참가를 확정 지으며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로를 열 것으로 보인다. 3일간 전 세계 30개국 450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미팅을 한다. 올해는 지난 행사와 다르게 온라인 사전 매칭을 진행해 2600여 건의 바이어와 셀러 미팅을 확정했다.

바이어들은 애니메이션, 웹툰을 넘어서 캐릭터나 스토리 등 새로운 IP(지식재산권)를 따내기 위해 쉽 없이 미팅을 진행했다. 태국에서 온 주크 솜사만 더 몽크 스튜디오 대표는 “새로운 IP를 찾으러 왔다”고 밝혔다. 이미 예약된 미팅만 21건이다. 태국에서 가장 큰 애니



전세계 30개국 450개 기업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남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텐츠마켓의 '비즈매칭'에서 미팅을 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국제콘텐츠마켓 SPP 개막 넷플릭스 등 450곳 '비즈 매칭' 참가 사전매칭으로 2600건 셀러미팅 확정

메이션 스튜디오인 더 몽크 스튜디오는 올해로 3년째 SPP에 참가한다. 주크 대표는 “우리 자체 IP도 만들고 있지만, 태국에 콘텐츠를 만들 충분한 인력이 없어서 외국에서 많은 콘텐츠를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은 좋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많이 갖고 있어 새로운 오리진 IP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SPP는 규모가 작은 미디어 스타트업에게 해외 바이어를 만날 중요한 기회다. 문지에 엠앤미디어 대표는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 배급사를 만날 수 있는 큰 행사여서 2014년부터 매년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엠앤미디어는 자사 콘텐츠 IP와 극장판 애니메이션 카봇 등 파트너사 콘텐츠 IP를 관리하고 있다.

문 대표는 “지금까지 중국으로 유통을 많이 했는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며 “오늘 미팅을 10개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은 사오미와 저희 회사가 SPP 주관으로 업무 협약식을 맺는다”고 덧붙였다.

SPP는 대기업에도 글로벌 파트너사와 만나는 중요한 자리다. 씨제이엔엠(CJ ENM) 김대현 글로벌사업팀 팀



영국에서 온 가브리엘라 코엘로-리체 와일드브레인 패밀리 인터내셔널(WildBrain Family International) 대표는 한국의 좋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찾아 미팅을 하고 있다.

장은 “10년째 참석하고 있다”며 “SPP에는 아시아 파트너사가 많이 참석해 그들과 네트워킹을 맺는 자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씨제이엔엠은 레인보우무비, 로보트레인 등 수십개 국에 방영되는 IP를 갖고 있다. 그는 “매년 바이어 리스트를 확인해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을 수 있을지도 확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산업진흥원은 아시아 국가 간 비즈니스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 시장 전문 포럼, 아시아뉴디렉션(AND)을 신설했다. 한국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사의 의사결정권자를 주축으로 아시아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연합(AAA)도 발족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웹툰 지식재산권 확보하자” 네이버·카카오 콘텐츠 전쟁

네이버 '웹툰 공모전 2기'

대상에 1억... 네이버서 정식연재
카카오 '다음 웹툰 공모대전'
본선 진출시 개발비·멘토링 등 지원

국내 양대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지식재산권(IP) 확보 움직임에 적극적이다. 웹툰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과가 좋을 뿐더러, 우수 IP만 있으면 웹툰을 기반으로 소셜, 영상, 캐릭터 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영역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총상금 15억원 규모의 웹툰공모전 '지상 최대공모전' 2기 접수를 시작했다. 총 3기로 나눠 9월까지 진행하며 각 기수마다 대상(1억원, 1편), 최우수상(3000만원, 1편), 우수상(각 1000만원, 2편), 장려상(각 500만원, 4편), 영상화상(5000만원, 1편, 중복시상 가능)을 수여한다.

모든 수상작은 네이버웹툰에 정식 연재되며, 네이버웹툰의 매니지먼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영상화상 수상작은 스튜디오N을 포함한 제작사를 통해 영상화가 추진된다.

네이버는 예비 웹툰 작가 양성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11일간 만화창작 프로젝트 '2019 지옥 캠프'에는 총 93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하루에 11시간씩 웹툰에만 몰두해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해냈다. 만화가 이현세 화백과 이두호 화백 외 다수의 현직 작가들이 도움을 줬으며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은 네이버웹툰의 단편선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웹툰을 통한 2차 저작물 제작에도 한창이다. '신과함께-이승편'은 영화에 이어 최근 창작가무극으로 선보였고, 웹툰 2호선 세입자도 연극으로 나왔다. 지난해 9월에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 JTBC를 통해 드라마로 방영됐고, '타인은 지옥이다'는 OCN에서 오

는 8월 31일 첫 방송된다.

카카오페이지의 CIC(사내독립기업) 다음웹툰도 예비 웹툰 작가들을 위한 '다음웹툰 공모대전'을 열며 역량 있는 작품 및 작가 발굴에 나선다.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대상 (5000만원, 1명), 최우수상 (1000만원, 1명), 우수상 (600만원, 2명), 장려상 (400만원, 4명) 등 역대 다음웹툰 공모대전 중 가장 높은 상금과 함께 다음웹툰 정식 연재 기회와 아이패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본선 진출작 14편은 각 작품 개발비 400만원과 약 2개월간 다음웹툰 전문가 멘토링, k-코믹스 아카데미 연계 기술 교육 등 최상의 창작환경 및 개별 프로듀싱을 지원받는다.

다음웹툰 공모대전에는 지금까지 5200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40명(팀)의 작가가 데뷔했다. 당선작 중 8작품은 영상판권 계약이 진행됐고, 13개 작품은 중국, 일본 등 해외 플랫폼에 연재돼 글로벌로 진출한 바 있다.

카카오는 방대한 슈퍼 IP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본격화에 나섰다. 다음웹툰과 카카오키의 드라마 제작사 메가몬스터, KBS가 손잡고 2020년부터 매년 1편씩 3년 동안 KBS에서 방송한다. 다음웹툰이 드라마의 원작이 될 IP 공급처 역할을, 메가몬스터는 IP를 영상화하는 제작사, KBS는 국내 대표 방송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16년 9월 카카오페이지의 사내독립기업으로 분사한 다음웹툰은 웹툰을 영상과 캐릭터, 단행본 등 2차 저작물화 하는데 앞장서 현재까지 다음웹툰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만 432개에 달한다.

최근 작품 중에는 카카오페이지의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tvN에서 드라마로 방영됐고, '롱리브더킹'이 영화화됐다. 다음웹툰작품 중에선 '강철비(웹툰명 스틸레인)'이 영화로 제작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현안해결’ 두 팔 걷은 중기업계

민주당 이어 한국당과 간담회 가져
협동조합 활성화 등 과제 56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며 규제 완화, 현장 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안 과제 56건을 제1야당에게 전달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일에도 이 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45건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오는 17일 예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선 황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 정유섭 의원, 김규환 의원, 임이자 의원, 이현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에는 기분 좋게 만나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무겁고, 유쾌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입을 연 뒤 “문재인 정부 정책실행 2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

생산, 투자 등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추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 내수부진에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단축해야하니 정말 힘들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 우리 당은 반시장 반기업정책을 반드시 막고, 경제를 살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백종운 대한기계설비협회장,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7명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전달부서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조합사무를 중기부로 일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업 등 공동사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에 효과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규제자유특구 쟁점 ‘의료정보’ 포럼 개최

중기벤처부, 원격의료 등 토론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의료정보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 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기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지역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할 규제가 있다. 중기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 실장은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 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며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로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공유주방 규제 풀어줘 큰 도움 박용만, 식약처에 감사한 까닭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독립주방’ 사업에 어려움 커
골목식당의 실험실 역할 기대
“공유주방 창업 5년 생존율 90%”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규제완화 감사를 전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15일 목동 식약청을 찾았다고 밝혔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기웅 대표와 그레이트 양승만 대표 등 청년 외식스타트업 경영자들과 함께했다.

박 회장은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주방 공유 관련 규제 완화에 감사를 표했다. 종전까지는 1개 음식점자에 별도 독립된 주방을 요구해 공유주방 사업에 어려움이 컸다.

박 회장은 식약처 이의경 처장과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 김현정 식품안전정책과장 등에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치킨집으로 일컬어지는 초영세 스타트업에 큰 인기인데 샌드박스를



박용만(왼쪽에서 두번째)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오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문해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활용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주셨다”며 “하루마다 430여개 음식점이 생기고, 370여개는 폐업 하는게 외식업계의 현실”이라며 “4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스타트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약처가 미래 사업을 여는 ‘엔젤’이 되어주길 바

란다고 규제 해소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위록 김기웅 대표는 “공유주방을 거쳐 창업한 경우 5년 생존율이 90%인 반면 거치지 않은 경우는 10%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식품, 외식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돼 식품, 외식업계의 유니콘을 탄생시키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중소, 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가능해진다

중기부, 상생협력법 등 오늘 시행
위탁기업 범위 중기업까지 확대

공급 원가가 올랐을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탁기업 범위도 중기업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오는 16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납품대금조정 협의의 제도의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통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기준이 정해졌다. 협동조합은 공급 원가에 일정 기준 이상 변동이 있으면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 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특정 원재료에 드는 재료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됐거나 재료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협동조합은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거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 등)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관련 요건, 방법, 절차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 중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유	시행령 개정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행위별 500만원 부과)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지 못하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시행규칙 개정
벌점 부과	위탁기업 준수사항 추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점 부과 유형기준 정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노무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 범위도 확대됐다. 위탁기업 범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중기업까지 대폭 넓혔다.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협의를 신청하는 개별 기업의 부담도 줄었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분쟁 조정 신청 요건은 위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상호 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또는 합의 지연 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등이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상생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도 변화가 생겼다.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와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정보, 영업 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된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신청서 양식과 협의 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도 활성화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을 통해 개정 상생협력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교역규모 27억弗… FTA 조기 타결로 경험 확대해야”

文-이스라엘 대통령 정상회담

수소경제·AI 등 폭넓은 의견교환
고등교육 협력 등 2건 MOU 체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작년 양국간 교역액 27억불 기록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수소경제·인공지능(AI)·5G(5세대 이동통신) 등 협력 강화 ▲한-이스라엘 양자관계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조속한 타결 공감대 ▲지역정세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 넘게 우호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

다”며 “양국은 작년 교역 규모가 27억불로 역대 최고(교역액)를 기록, 2001년부터 양국 정부가 공동출자한 한-이스라

엘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공동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또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양국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특히 양국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간 교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협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상생협력 기반 공고화를 위한 총 2건의 정부간 MOU(고등교육협력·수소경제협력)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식 오찬 때 “리블린 대통령과 진솔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갈 양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진 첨단산업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제조업 융합이 결합되면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관련 “우리나라의 대중동요외연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내 우리기업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추경심사 시작부터 與野 파열음

여야 이견으로 30분만에 정회
19일 전체회의서 추경안 의결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나선 여야는 15일 2차 종합정책질의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보수권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외교부)·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일부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야 이견으로 회의는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번 추경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마련한 최대 3000억원의 추경 증액 등을 두고 정부 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등 일부 위정자만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이현재·장제원 등은 이번 질의와 관련 “국정을 총괄하는 이 총리 등의 해의 순방을 나갔다”며 “종합적·책임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차선으로 청와대 김 실장이나와 (이 총리 대신)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총괄은 홍 부총리가 하는데 누구한테 더 물어본다는 것이냐”며 “김 실장은 이 일에 대해 직접적 소관 업무·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1차 중

합정책질의)에서 일본 경제 생트집에 대해 (정부를) 충분히 야단쳤다”며 “속 기록을 보라”고 하소연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정책실장을 참석시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여당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오전엔 여당부터라도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속개를 촉구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와 청와대 기조가 같은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의를 하면서 교섭단체 3당 간사는 김 실장 출석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정부 태도를 지적했지만, 본격적 질의에 나서면서 여야 기싸움은 일단락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 이후 17~18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밀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가결할 경우 추경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하지만 추경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번 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재해 지원 추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참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도 ‘내년 총선용 선심쓰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내 처리가 힘들거나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석대성 기자 bigstar@

“韓日 과거사 송곳같아… 지혜모아 해결을”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日, 양국관계 발전 역행처사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한 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인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일본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기업들은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를 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우승준 기자

황교안 “경제문제 논의회담 응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경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이라면 어떤 형식이라도 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회담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그간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면 한국당은 대응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회담 형식에 대해선 “경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국가·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형식에도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靑에 日 규제대응 관련회담 제안 “국민 지키기 위해 어떤 형식도 동의”

황 대표는 이날 회담 제안에 이어 ▲대일·대미특사과견 ▲관공정 협력위원회와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외교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 대표 제안에 여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초당적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내년엔 특목고도 시험대... '文 고교체제 개편'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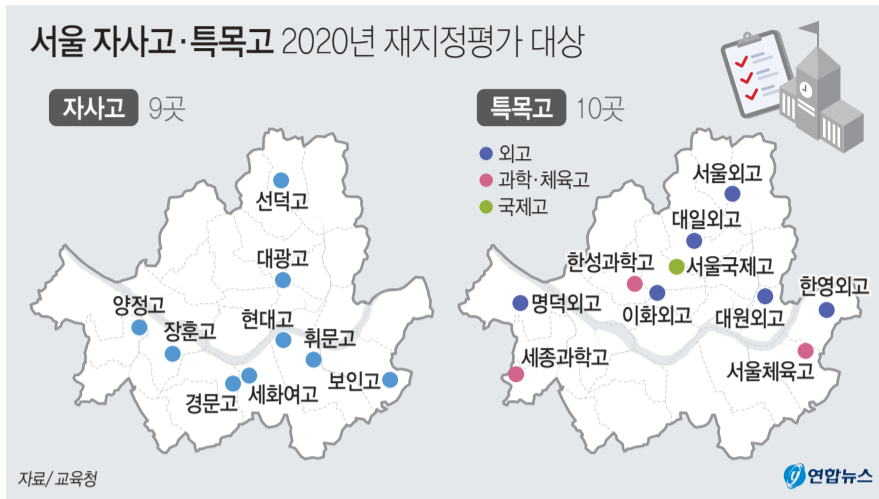
내년 서울9곳 등 자사고 재지정 영훈국제중 등 특성화중 3곳 대원외고 등 특목고 10곳 평가 특목고 등 일반학교 전환 속도

올해 시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받은 학교 중 약 절반이 재지정 탈락 위기를 맞은 가운데, 시도교육감의 직권취소와 내년 특목고 대상 평가도 예정돼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과제로 단계적 고교체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2019년까지 입시제도 개선 ▲2018년~2020년 단계적 전환 ▲2020년 하반기 이후 고교 체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2019학년도 고입에서 자사고를 포함해 외고와 국제고의 후기 동시모집기로 하는 등 입시제도를 손질했고, 고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일반학교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고교 체제 개편의 마무리는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2020년 하반기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 최대 5년간 20억원씩 추가 재정지원을 하는 등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후속지원책을 내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절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시설 개선이나 예체능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전체 24개 자사고에 대한 11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11개교(46%)가 탈락했다. 서울에서는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하나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가 대거 탈락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동의 받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일

반고 전환이 유력하다.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자사고 중 상당수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하고 있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6곳 중 전북 군산시 군산중앙고, 익산시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 등 3곳에 이어 15일 서울 경문고가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네 학교 모두 올해 지원 미달 사태를 겪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들 학교 외에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자사고들의 모집 경쟁률은 2대 1 미만이거나, 미달을 기록하고 있어, 대다수

자사고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올해 서울지역 자사고 21개교의 신입학 지원 현황(정원 내)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7842명 모집에 852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09대 1을 기록했다. 경문고·경희고·대광고·동성고·세화여고·송문고 등 서울시내 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적은 미달 사태를 맞고 있다.

내년에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와 국제고도 무더기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있고, 상당수 학교가 탈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경문고·대광·보인·현대·휘문·선덕·양정·장훈·세화여고 등 9개 자사고가 재지정평가를 받고, 대구 대건·경일여고, 인천 하늘고, 대전 대성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전북 남성고 등 15개 학교가 재지정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도 평가대상 자사고 중 3곳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기지 못해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뒤 보완평가를 통과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향후 평가에서도 탈락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어고와 과학고·체육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중도 대거 운영성과평가를 받는다. 서울에서만 대원외고·대일외고·명덕외고·서울외고·이화

외고·한영외고 등 외고 6곳과 서울국제고 등 국제고 1곳, 한성과학고·세종과학고 등 과학고 2곳, 서울체육고 등 특목고 10곳이 재지정평가를 받고,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서울체육중 등 특성화중학교 3곳도 평가 대상이다. 서울 외고와 영훈국제중의 경우 4년 전 평가에서 기준점(60점)에 미달한 점수를 받았으나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과 2년 뒤 재평가를 받기로 했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지정평가 외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교육 시민단체가 서울 자사고 9곳이 지난해 수험시험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의혹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법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자사고에 대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퇴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투스 입시설명회.

/뉴시스

이투스 '댓글조작' 혐의 재판... 스타강사 연루

5년 동안 경쟁사 비난 댓글 혐의로 김형중 대표 등 임원 3명 불구속 기소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교육(이투스) 대표가 경쟁사 강사를 비난하기 위해 '댓글 알바부대'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강사 백인덕·백호씨도 이 같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임원 3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김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 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물·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G사의 지시를 받은 댓글부대는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수만회, 오르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백브라더스'

로 불린 유명 강사 백인덕·백호씨도 악성 댓글 달기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투스의 댓글 홍보 논란은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투스는 2007년과 2011년, 2017년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이투스 소속이던 우형철씨가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 등을 비난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우씨의 폭로가 이어지자 학부모단체인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이투스에서 강의했던 설민석·최진기씨도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투스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정모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수사 결과 이투스의 조직적 댓글홍보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으나 설씨 등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현경 기자 son89@

SK·CJ·LG... 대기업 신입공채 9월 '집중'

지난해 절반 이상 9월 중 서류접수 평균 14일간 모집... "미리 파악을"

올해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절반 정도가 오는 9월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9월말 이전에 서류접수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잡코리아는 작년 하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한 대기업 245곳의 신입공채 모집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모집은 9월에 서류 접수를 시작한 기업이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10월 서류접수를 시작한 기업이 16.7%로 많았고 ▲12월(11.4%) ▲8월(11.0%) ▲11월(5.3%) 순이었다.

서류접수 마감 월도 9월이 55.9%로

한성대

학생 300명 농촌봉사활동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14일~18일까지 5일간 충청북도 충주시 8개면 19개 마을에서 '2019년 하계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도시화로 젊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됐다. 한성대 총학생회가 참여학생을 모집한 결과 500여명이 지원했고, 선착순으로 접수한 학생 250명과 통솔·책임 학생 대표 50명 등 300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농가를 방문해 사과, 복숭아, 토마토, 옥수수 등의 작물에서 부실한 열매를 수확하고, 수확하기에 적합한 열매는 잘라내는 활동을 한다. /한용수 기자

과반수 이상이었다. 작년 하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한 대기업의 절반 정도가 9월 중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마감까지 진행한 것이다. 이어 10월 서류접수 마감 기업이 17.6%로 많았고, ▲12월(12.2%) ▲11월(9.4%)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포문을 연 기업은 KT그룹으로 지난해 8월 28일 모집을 시작해 9월 11일 서류접수를 마감했다. 올해부터 신입공채 수시 채용을 도입한 현대자동차도 작년 하반기에는 8월말 모집을 시작해 9월 10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신입직 그룹공채를 진행하는 ▲SK그룹은 지난해 9월 3일~14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고 ▲CJ그룹은 9월 5일~17일까지 ▲롯데그룹은 9월 5일~1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계열사별 공채

를 진행하는 삼성그룹은 9월 5일~14일까지, LG그룹 계열사는 9월 3일 전후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9월 17일 전후 마감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모집기간은 평균 14일이었다. 모집기간이 가장 짧았던 기업은 샘표식품으로 작년 10월 8일~12일까지 5일간 지원자를 받았다. 모집기간이 가장 길었던 기업은 DB그룹으로 9월 1일~10월 1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대기업 신입공채 모집시기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 모집 시기를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선정

중앙대는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지원과제 중 2개 과제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중앙대 기계공학부 이형순 교수 연구팀의 '다이나몬드를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이기욱 교수 연구팀의 '초소형 가변중력보상모듈 일체형 설계를 통한 차세대 소형 액추에이터 개발' 프로젝트다.

이형순 교수 연구팀의 프로젝트는 반도체 소자 구조와 소재를 획기적으로 차별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3년간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기욱 교



이형순 기계공학부 교수 이기욱 기계공학부 교수

수 연구팀은 로봇, 기계장치 및 다분야의 소형화 및 경량화, 원가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3년간 총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 부부 합동 결혼식 개최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비전홀에서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인 '제8회 우리웨딩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부부 10쌍을 선정해 합동결혼식을 실시했다. 손태승(가운데)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이 10쌍의 다문화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 교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24기 해외 교환장학생 350명을 선발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은 한국의 인재들이 넓은 세계에서 지식 함양 및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외 교환학생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교환학생 장학 사업이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삼성생명, 태국서 '맹그로브 식목 봉사활동' 진행
삼성생명은 직원 30명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태국 팻차부리 지역을 방문해 맹그로브 식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삼성생명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인 '그린 글로벌 프로젝트(Green Global Project)'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12회째를 맞은 그린 글로벌 프로젝트에 그동안 참여한 직원 수는 총 687명에 이르고 팻차부리 지역에 3만1000여그루의 맹그로브 묘목을 심었다. /삼성생명



오비맥주, 환경재단과 '미래 물 지키미 환경캠프' 열어
오비맥주는 지난 12일 환경재단과 함께 '미래 물 지키미 환경캠프'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역아동센터 개선사업인 '해피 라이브리'와 연계해 해당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 총 50여명을 환경캠프에 초대해 퀴즈대회와 토론수업 등 맞춤형 활동으로 이뤄졌다. /오비맥주

인사

◆특허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재우
◆EBS ◇ 부장 승진 △마케팅기획부장 김철범 △콘텐츠관리부장 오정호

부음

▲ 강대석씨 별세, 최점석(전주완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씨 장인상 = 15일 오전, 전주 예수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7일 오전, 장지 전

주공원묘원, 063-285-1009
▲ 문식 씨 별세, 문석훈(이루다금샘 대표)·종훈(디오션리조트 홍보기획팀장)·훈미(최상위 에듀 부원장)·훈경(광주 효광중 교사) 씨 부친상, 양진형(한국석유유통협회 전무) 씨 장인상 =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 만평장례식장 202호, 17일 오전 9시, 062-611-0000
▲ 감윤상씨 별세, 감명국(시사저널 취재1팀장)·감혜진(투비아이에스컨설팅 부장)씨 부친상, 김경숙·김미정씨 시부상, 주진호(옥타솔루션 이사)씨 장인상 = 14일 오전 6시,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5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070-4710-1826

암울한 2019년 현실창업지수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최근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이에 따라 30~50대 비임금 근로자 고용이 위축됐다.

연령별 고용률 또한 2010년 1~5월 평균 기준으로 30대, 40대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2%p, 0.6%p 감소했다. 50대에서의 고용률 상승세가 멈추는 등 중년층 고용도 악화됐다.

이처럼 중장년층의 고용이 악화되면서 이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개인 창업기업은 8만4707곳이었다.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은 4월 기준 1만7865곳으로 2월 1만2581곳보다 5000여 곳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월 기준 2만874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40대는 2월 2만3305명에서 5400여명 이상 늘어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였다. 4월 기준 50대 2만5148명, 30대 2만4328명, 60세 이상 1만3624명, 30세 미만 1만1824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창업인구의 증가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통계다. 바로 고용과 상관관계의 창업지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전체 경기지표나 고용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85만8000명이었다. 그런데 6월은 417만여명으로 1월 대비 32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월 161만4000명에서 6월 153만600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창업을 독려하는 소상공인지원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조건적 지원을

통해 창업을 독려하는 만큼 폐업도 증가하는 제로섬 게임법칙이 자금의 창업 시장이 문제라 하겠다.

고용이 없는 창업이 반듯이 경기상황적 문제만은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직접매출보다 O2O서비스를 활용한 운영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을 줄이는 운영형태로의 변화도 당연히 시대적 배경이다.

하지만 매출대비 수익성 하락에 따른 인건비 절감의 목적이 비고용형태의 운영에 더 영향을 준다.

창업은 지속적 수익을 기반으로한 재투자형 사업이다.

전체 소상공인의 성공은 한달 30일은 기준으로 3일 매출(임대료), 5일 매출(인건비), 2일 매출(판관비), 1일 매출(원부재료비), 8일 매출(수익금)이 선행돼야 적절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창업을 위한 철저한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KT, 경북 의성군에 IT 특화지역 조성

경상북도, 안동시와 손 잡고 AI 아이디어파크 등 공동추진
홈 IoT 등 ICT 솔루션 지원

KT는 15일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청사에서 경상북도, 의성군과 '이웃 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경북형 IT특화지역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3개 기관은 KT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내 창업·주거·교육 공간에 청년 친화적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노마드 청년을 유치해 저출생·고령화로 농촌 소멸위기와 IT 기술을 활용해 농촌 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KT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 행복누리관(가칭)내 AI 아이디어파크 조성 ▲ 5G 네트워크 기반의 청년 IT창업 및 주거공간 조성 ▲ I-함께 시티 조성 ▲ 미래 ICT기술 체험 및 코딩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왼쪽부터), KT 홍보실장 윤종진 부사장, 김주수 의성군수가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조성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를 위해 KT는 연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의성군 안계면 청년주거공간에 기가지니를 비롯한 홈IoT 등 ICT 솔루션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오픈 공간인 '청년교차방'에는 360도 촬영이 가능하

고 목에 걸 수 있는 카메라 'FIT 360(핏 360)' 등을 지원한다. 또 내년에는 5G 네트워크 및 공공 와이파이, AI파크 조성, 지역 아동 대상 드론·로봇·코딩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예보, 초복맞아 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행사

어르신 장애인 등 1000여명 참석
임직원 30여명 배식·설거지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초복을 맞아 수원 버드내노인복지관, 양주 지체장애인협회, 우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삼계탕 나눔 배식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예보 임직원 30여명은 배식 및 설거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음식을 직접 드리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초복을 맞아 노인복지관 등에서 삼계탕 나눔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에 참여한 위성백 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등 공사 임직원과 수원 버드내노인복지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예보 관계자는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식중독 꼼짝마... '여름 안심템' 먹거리 안전 지킨다

빙그레 무균팩 '바나나맛 우유 키즈'
롯데칠성음료 아셉틱 페트병 사용
돌코리아 테트라팩 무균 포장재 안전
오리온 냉방시설·페로몬트랩 설치



왼쪽부터 바나나맛우유 키즈, The더건강한 통오리 오븐구이, 핑크퐁 루이 보스보리차. /CJ제일제당·롯데칠성음료·빙그레

식품업체가 여름철 먹거리 안전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에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식중독과 같이 여름철에 발생 확률이 높은 질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8월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연평균 113건이었으며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40%가 이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마철에는 식중독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먹거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의 여파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균 충전·살균공정 등을 통해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선보이거나, 여름철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에 들어가는 등 무더위 속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빙그레는 새로운 가공유 '바나나맛 우유 키즈'를 선보였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는 국내 가공유 시장 매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한번에 마시기에 다소 용량이 많은 데다 (240ml) 남은 제품을 보관하기도 어렵다는 소비자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빙그레는 이같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바나나맛우유 키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아이들이 한번에 마시기 적당한 용량(120ml)으로 무균팩 충전을 통해 실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출할 때 챙겨가기 좋다. 유통기한도 10주로 늘려 편리성을 더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어린이 차음료 '핑크퐁 루이보스보리차'를 출시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핑크퐁과 아기상어 캐릭터를 제품 디자인에 활용한 차음료로, 카페인 없는 루이보스와 구수한 맛의 보리, 옥수수, 현미, 누룽지

쌀 등 곡물 추출액이 함유돼 있어 평소 물마시기를 꺼리는 아이들도 맛있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는 미생물 번식이 쉬운 차음료 특성을 고려해 아셉틱(Aseptic) 페트병을 적용하고 무균충전공법을 통해 품질 안전성을 높였다.

청과브랜드 돌(Dole)코리아의 '후룩팝' 4종은 얼려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대로 섭취해 주스로도 즐길 수 있는 2in1 아이스바이다. 외부의 빛과 공기를 차단해 주는 테트라팩 무균 포장재를 사용해 여름철 상온에서도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

에, 매장에서 녹을 걱정 없이 액체상태로 구매 가능하다. 62ml의 소형 패키지로 출시된 '후룩팝'은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각자 기호에 맞게 섭취할 수 있으며, 무더운 여름철 어린 자녀들의 간식, 여름휴가철 간식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여름철을 맞아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오리온은 전국 영업소에 냉방시설·경기 지역 거처에 해충방제용 '페로몬트랩'을 무상 배포하는 등 여름철 품질안전 관리에 나섰다. 오리온은 고온에 취약한 젤리, 초콜릿, 파이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국 27개 영업소 물류창고에 냉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외부 온도가 섭씨 40도에 다다른 하절기에도 섭씨 25도 이하의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저온 보관 구역'을 마련한 것이다. 오리온은 지난 2014년 전국 영업소 창고에 무선 온도·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사광선 차단시설과 강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다.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냉장햄 브랜드 'The더건강한'의 신제품 'The더건강한 통오리 오븐구이'를 선보였다. 이번 제품은 오리 고유의 고소함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CJ제일제당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철저한 2단계 살균 공정을 거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또한 The더건강한 브랜드의 특성에 맞춰 전분·보존료(소브산칼륨)·에리트오브산나트륨 등 3가지 무첨가로 건강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일동후디스조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제품 철학에 따라 유기농 쌀, 유기농 찹쌀, 국산 무농약 채소, 국산 소고기, 무항생제 닭고기를 사용한 이유식 '처음이유식'을 출시했다. '처음이유식'은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생산공정과 영·유아식의 까다로운 기준 규격에 맞춰 만들어져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한 일동후디스는 돌려개봉하는 안전캡을 사용해 위생적으로 여러 번 나눠서 섭취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먹거리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팔도, '비빔면 매운맛'으로 계절면 시장 공략

인기폭발 '팔도네빔면' 정식 제품화
옥션에서 선착순 100원 판매 이벤트

팔도비빔면이 라인업을 확장하고 계절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팔도는 '팔도네빔면'을 정식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팔도는 제품명을 '팔도 비빔면 매운맛'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장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계절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73억원으로 793억 원이었던 2015년에 비해 3년 새 60% 넘게 성장했다. 성수기가 아닌 지난 4월까지 누계 금액도 3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 가량 늘어났다.

제품의 정식 출시에는 소비자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2월 선보인 '팔도네빔면'이 추가 물량을 포함한

총 1000만개가 조기 완판됐다. K-푸드 열풍에 한국의 매운맛을 즐기려는 해외 고객들의 러브콜이 늘어나 한정판 제품으로는 드물게 해외 수출 길에도 올랐다.

'비빔면 매운맛'은 기존 '팔도 비빔면' 대비 5배 가량 매운맛 그대로를 유지했다. '팔도 비빔면' 액상스프에 할라피노 분말과 홍고추를 넣어 맛있게 매운맛을 구현했다. 골뱅이, 삼겹살, 매운 닭발 등 다양한 재료와 함께 먹는 소위 '베리에이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더욱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윤인균 팔도 마케팅 담당자는 "팔도 비빔면 매운맛"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만든 특별한 제품이다"며 "매운맛을 선호하는 1020세대부터 기존 '팔도 비빔면'을 즐겨온 고객에 이르기까지 고객층을 확대하며 국민 비빔면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팔도는 제품출시를 기념해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선착순 1000명에게 '팔도 비빔면 매운맛' 번들 제품을 100원에 판매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금징어의 귀환... 롯데마트, 국내산 판매

제철 맞아 내일까지 2500원에 선봬

국내 수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 금(金)징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오징어의 어획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속초 수협 어획량이 약 24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톤)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최대 어시장 중 하나인 부산공동어시장의 5~6월 위판실적도 증가했다. 5월 위판량은 4450kg으로, 전년 동기(2230kg) 대비 99.5% 늘어났으며, 6월에는 4만3416kg으로 전년(2만7770kg) 대비 56.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동해안 수온이 높게 유지되면서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의 어장이 동해를 중심으로 넓게 형성된 데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오징어 금어기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오징어 철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국산 생 오징어를 2500원에 판매한다. 이후에도 물량 수급 상황을 보고 오징어 행사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광명점 수산 MD(상품기획자)는 "아직 예년 수준까지 회복되진 않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매주 행사를 할 수 있진 않지만 제철 오징어를 맛보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삼성물산 패션, 제15회 SFDF 수상 디자이너 모집

삼성패션디자인펀드(Samsung Fashion & Design Fund, 이하 SFDF)가 K패션을 빛낼 새로운 디자이너를 공개 모집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부는 오는 25일까지 SFDF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15회 SFDF 수상 디자이너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SFDF 수상 디자이너는 10만 달러(약 1억 1000만 원)를 후원 받는다. 또한, 삼성물산 패션부부의 통합 온라인



물 SSF샵 입점 기회, 비이커 등 브랜드와 협업 기회가 주어진다.

SFDF는 지난 2005년 삼성물산 패션부문에 설립한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 후원 프로그램으로, 설립 이후 10여년간 세계 시장에서 주목 받는 한국 디자이너 23개팀을 배출, 총 330만 달러(약 38억 원)를 후원해 왔다.

접수는 SFDF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해외 컬렉션에 참가하고 있거나 해외 판매 실적이 있는 한국계 신진 패션 디자이너로, 론칭 5년 이하의 독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 학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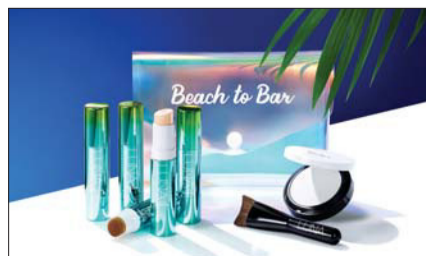
이번 SFDF의 평가는 내부 전문가·경영진 심사, 국내외 자문단 심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 내부 전문가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디자인실장·디렉터·CD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자문단은 국내 패션매거진 편집장, 글로벌 패션·디자인 학교 및 협회 관계자로 구성된다.

쇼룸 현장 실사 및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올해 12월 중으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애경산업 루나, '코어 핏 파운데이션 썸머 에디션'

애경산업의 루나(LUNA)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코어 핏 파운데이션' 여름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루나 코어 핏 파운데이션 썸머 에디션은 계절 특성에 맞춰 촉촉하면서 보송한 커버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특별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쉽고 빠르게 베이스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스틱 형태의 파운데이션과, 메이크업 픽서 겸용 팩트인 '루나 프로 포토 피니셔'가 함께 구성돼 보다



보송한 메이크업 완성을 도와준다. 휴대용 파우치도 함께 구성됐다. 첫 판매 방송은 16일 오후 5시 35분에 GS홈쇼핑에서 시작된다. /김민서 기자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점보씨푸드 도곡점에서 '점보씨푸드 국내 론칭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범택 디딤 대표, 양 키암 멩 점보그룹 대표, 임재준 JD F&B대표. /연합뉴스

싱가포르 명물 '칠리크랩' 韓 입성

디딤-싱가포르 점보그룹
강남에 '점보씨푸드' 1호점 오픈

싱가포르의 명물인 '칠리크랩'을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디딤은 싱가포르 점보그룹과 함께 '점보씨푸드' 1호점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점보씨푸드는 싱가포르의 외식 기업 점보그룹이 운영하는 브랜드로 1987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 시그니처 메뉴인 칠리 크랩과 블랙페퍼크랩 요리가 특히 인기로 싱가포르 여행 시 꼭 먹어야 할 맛집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9개 도시에 1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점보씨푸드 1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재준 JD F&B 대표이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점보씨푸드는 점보의 세계 18번째 매장"이라며 "씨푸드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점보씨푸드는 신선한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키암 멩 점보그룹 대표는 "점보씨푸드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지난 32년간 싱가포르 대표 씨푸드 업체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점보씨푸드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에게 인기를 받아왔다. 이번에 싱가포르 전통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점보씨푸드의 국내 진출은 마포갈매기, 연안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 기업 디딤에 의해 이뤄졌다.

양 키암 멩 대표는 "점보씨푸드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디딤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디딤과 점보그룹은 지난 2월 디딤의 자회사인 TCI와 점보그룹이 지분 비율 50:50인 조인트 벤처 JD F&B를 설립해 공동사업을 펼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JD F&B는 첫 번째 사업으로 점보씨푸드 국내 론칭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점보씨푸드 국내 1호점을 오픈하게 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점보씨푸드 1호점은 매장 규모가 약 992㎡(약 300평)인 대형 매장으로 매장 내부는 홀과 룸으로 구성돼 있다. 룸에서는 프라이빗한 식사가 가능하며 원형 테이블로 구성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특히 점보씨푸드 매장은 싱가포르 현지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매장 입구에는 싱가포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속의 동물 머라이언상이 자리잡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는 싱가포르 현지 매장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꾸몄다.

메뉴의 맛과 서비스에서도 싱가포르 본사에서 인력이 직접 파견 나와 국내 매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미 도곡점에 투입되는 국내 인력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수개월간의 트레이닝을 마쳤다.

이로 인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싱가포르 현지와 동일한 메뉴와 서비스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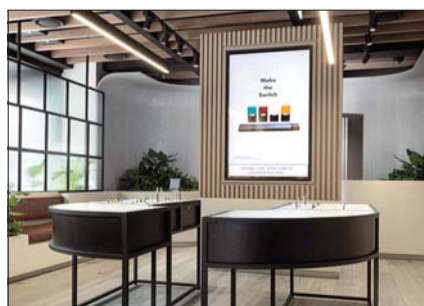
줄 랩스, 국내 첫 직영점 '줄 스토어' 오픈

세로수길서 체험·사후 서비스 등

미국 액산전자담배 브랜드 줄 랩스(JUUL Labs)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세로수길에 국내 첫 직영소매점 '줄 스토어 세로수길지점'을 공식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줄 랩스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게 된 줄 스토어에서는 제품의 체험과 구매가 모두 가능하다. 줄 스토어에서는 줄 디바이스(살버, 슬레이트)와 5가지 종류(클래식, 딜라이트, 프레쉬, 트로 피컬, 크리스프)의 리필팩(2개입, 4개입) 및 USB 충전 도크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4개 종류(프레쉬, 클래식, 딜라이트, 트로피컬)의 맛으로 구성된 스타터팩도 만나볼 수 있다. 구매 전 경험을 원하는 성인 흡연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구매 후 시연이 가능하다.

줄 스토어 세로수길지점에서는 줄 디바이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각인 서비스를 제



줄 스토어. /줄 랩스

공한다. 또한, 이미 줄을 구매한 고객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줄 스토어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승재 줄 랩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줄 스토어 오픈을 통해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최적의 대안적인 줄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성인 흡연자들이 단순하고 깔끔한 JUUL을 통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스토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대웅제약-메디톡스 소송 새국면

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밝혀라"
대웅제약, 소송서 유리한 위치 선점
11월 재판 예정... "진실 밝혀질 것"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 시각)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미국 ITC 명령문 Order No.17

ITC 명령문을 통해 메디톡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현지 시각)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청했다. 또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



SNS에 자살유발정보 올리면 징역·벌금형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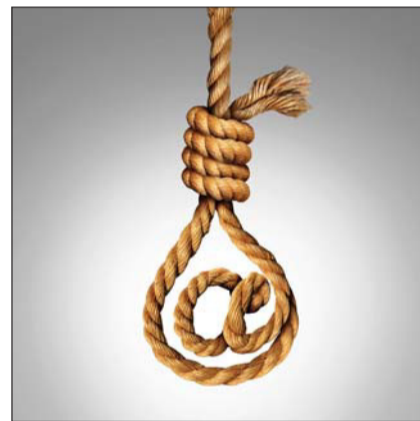
오늘부터 자살예방법 개정 시행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전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동반자 모집도 2155건(12.7%)에 달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의 75.8%가 사회관계

(A hyper) 군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올해 초부터 보툴리눔 독소의 군주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월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군주와 독신 제조 기술을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하는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 소송은 증거수집(Discovery) 절차를 통해 양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해 전달받도록 되어 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이 임하며 메디톡스에도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재판은 오는 11월 있을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과 관련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여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군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elie@metroseoul.co.kr

‘백발의사’ 이강안 원장 성천상 수상

청산도 16년 의술... ‘건강 지킴이’

**JW그룹 중의학술복지재단 선정
폐원 위기 병원에 원장 자임
하루 평균 환자 120명 진료
매년 1000만원 이상 기부도**

전라남도 최남단 청산도에서 홀로 인술을 펼치며 여생을 바치고 있는 이강안 원장이 올해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의학술복지재단은 제7회 성천상 수상자로 이강안 청산도 푸른뇌중앙의원 원장(83)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원장은 ‘부와 명예보다 희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신념 아래 안정된 노후 생활 대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남 완도군 청산도와 인근 섬마을의 유일한 의사로서 16년째 헌신하고 있다.

1962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잠실병원 부원장, 해민병원 원장을 거쳐 1993년 서울 화곡동에서 이강안 의원을 개원해 10년간 운영했다. 이후 근무 의사가 없어 폐원 위기에 처한 푸른뇌중앙의원의 소식을 접하고 2004년 원장을 자임했다.

청산도는 내륙으로 향하는 배편이 하루 1번 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된 환경이다.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환자가 많아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



이강안 청산도 푸른뇌중앙의원 원장.

한다. 푸른뇌중앙의원은 약 2200여 명이 살고 있는 청산도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2003년 설립됐지만 1년 동안 의사가 4차례나 바뀔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했다.

이 원장은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위해 오전 7시 40분부터 진료를 시작하며 하루 평균 120명의 환자를 돌본다. 지난 16년간 수행한 외래진료는 48만 건에 달한다. 진료시간 외에도 환자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인근 섬민 여서도, 모도까지 배편으로 왕진을 다닐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이 원장은 남다른 선행도 펼쳐왔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고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기증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어주는 등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기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성나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안정된 노후의 삶을 포기하고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노년을 바친 이강안 원장의 삶이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된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7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지에서 묵묵히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인류 복지 증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트라, 스타트업 中서부내륙 진출길 연다

中 청두서 사흘간 ‘멘토링 패키지’

KOTRA(코트라)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중국 서부내륙 진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기존 베이징, 상하이, 선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중 스타트업간 교류를 내륙으로 확대한 모델이다.

코트라는 경기대학교와 협업으로 16일부터 사흘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국내 스타트업 중국 내륙진출 멘토링 패키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대 창업기업 2개사(퀀텀솔루션, 모도컴퍼니)를 비롯해 ▲만나통신사(비즈니스여행기획) ▲누리바이오(유전분석 플랫폼) ▲소소(뇌파디바이스 솔루션) ▲포도씨(키오스크) ▲상상날다(교육용 SW) 등 혁신 스타트업 10개사가 참가한다.

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한 쓰촨성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육성 정책에 따라 귀국 유학세대를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하다. 총 11만 5000개 기업 중 창업기업이 약 1만 5000개(13%)에 달한다. 또한 인텔·IBM 등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약 350여개사가 중국 서남지역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 전자, 정보통신 기술(ICT), 바이오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어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췄다.

이번 사업은 현지 창업인프라를 활용해 ▲현지 진출 멘토링 ▲시장조사 및 기업방문 상담 ▲데모데이(피칭)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패키지로 단기간에 집중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도했다. 특히 참가 스타트업별로 배정된 해당분야 전문가 멘토(1명)와 코디네이터(1명)가 전 일정을 함께해 눈길을 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술보증기금은 15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KEB하나은행과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부터)정윤모 기보 이사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 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KEB하나은행, 中 海외진출 맞손

‘해외진출보증’ 제도 확대 개편

기술보증기금이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기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하나은행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 정보 공유 등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해외진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 중 해외에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 진출기업에 2022년까지 1조원 해외보증 지원’ 계획에 따라 해외진출 희망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보증대상기업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해외진출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해외진출보증’은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해외자회사 지분 등을 취득하거나 자회사에 장기 대여하는 자금을 대한보증인 ‘해외투자자금보증’과 해외자회사 사업화 자금을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통해 지급 보증하는 ‘해외사업자금보증’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광명시와 청년창업 힘 모은다

혁신창업센터 조성 등 협력 MOU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명시,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과 15일 경기 광명시청에서 ‘청년창업 및 기업지원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중진공 김현태 부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재현 국회의원, 청년창업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보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 협업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혁신창업센터 조성 및 운영 협력 ▲청년창업사관학교, 정책자금 등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명시 백재현 의원과 ‘청년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백재현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김현태 중진공 부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및 수출확대를 위한 협업·사업연계 ▲지역 사회회경제기업 활성화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으로 향후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중진공과 백재현 국회의원의실은 지난달 말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북한 이탈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취업·창업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또 협약식 이후에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진공 정책설명회와 1대1 밀착상담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중진공 김현태 부이사장은 “광명시, 백재현 국회의원의실과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다양한 지역특화 협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시교육청-서울시 ‘학생 흡연예방’ 토론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제2회 학생 중심 흡연예방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흡연예방사업과 지역사회 금연정책에 대해 토론했고, 청소년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이 흡연예방 활동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흡연예방 동아리 운영 중인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시 소재 16개 중·고등학교와 서울시 청소년의회 소속 학생 약 120여명과 지도교사가 참가한다.

토론회 주제는 ‘우리가 만드는 담배 없는 세상’으로 참가 학생들은 비흡연

(금연) 선포식,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예방 동아리 활동, 담배 없는 학교를 위한 규칙, 우리 동네 간접흡연 예방책, 담배 광고를 없애는 방법 등 학교와 지역사회 수준의 세부 주제를 조별로 토론했다.

한편 학교보건진흥원은 19일 오후 3시부터 ‘제5회 흡연예방 및 금연창작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수상자 71명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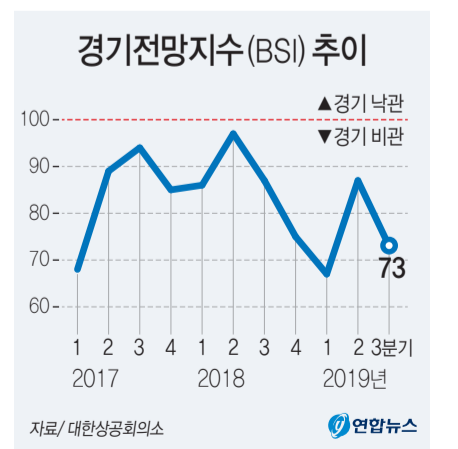
/한용수 기자

제조업 3분기 체감경기 전망 ‘흐림’

대한상의 BSI 발표... 14p 하락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를 15일 발표했다.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3분기 BSI는 전분기보다 14포인트나 떨어져 73을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이다. 당면한 애로사항으로는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 부진’이 54.3%로 가장 많았다. ‘임금 상승 등 비용부담의 증가’도 27.9%나 됐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6.8%가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수출기업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직전분기에는 100이었던, 12포인트하락해 88로 주저앉았다. 내수부문은 14포인트나 하락해 70에 머물렀다.

/김재용 기자



New

★ 아르바이트생들의 시크릿 레시피 ★

DOUBLE X2



버거 ₩5,300

세트 ₩7,300

맛도 2배
양도 2배

★ 또 하나의 더블 레시피 ★

→ 촉촉한
브리오쉬번



더블치킨버거 버거 ₩3,900 세트 ₩6,100



더블클래식치즈버거 버거 ₩5,400 세트 ₩7,400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인천항 이용객 100만명 돌파... '사상 최다'

다양한 상품개발·유치 등 효과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6월까지 인천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100만2000명으로 인천항 개항 이래 최초로 상반기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여객(크루즈 포함)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1만2000명(65.4%)가 증가한 5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해제 조치, 3만톤급 이상의 대형 국제카페리의 잇따른 운항 개시와 다양한 이벤트 등의 유치노력 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안여객의 경우 6만1000명(15.1%)이 증가한 46만7000명을 기록했으며, 양호한 기상에 따른 운항횟수 증가, 다양한 해양관광상품 개발, 지자체의 운임지원 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번 상반기 100만 명 돌파는 인천항 개항 이래 의미있는 성과"이며, "대내외 양호한 제반 여건과 맞물려 선사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등 민·관·공이 합심해 다양한 상품개발 및 유치노력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신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간접일자리 11.7만개 창출"

전남형 일자리 모델로 만든다

민자 50조 투입, 8.2GW급 발전 목표 신항만에 배후단지 개발 정부-한전-지자체 힘 모으기로

전남 신안의 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전남형 일자리' 대표 모델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45조~50조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 투자사-한전-정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상시 일자리만 4000개, 간접일 자리를 포함하면 11만 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남형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도가 마련한 미래성장 프로젝트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은 블루 이코노미의 5대 전략 중 블루 에너지에 포함돼 있다.

신안군 해상 일원에 8.2GW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단순 발전단지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포신항만에 해상풍력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도 개발한다.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송전망 구축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

신안해상에도 송전망을 구축하려면 2조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입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 추진됐던 해상풍력사업들이 좌절됐던 가장 큰 이유였다.

지난 12일 전남에서 열린 대통령 경제 투어에서 이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한전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송전망을 정부와 한전-사업자가 함께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도 사업자 비용을 절감해주고 한전도 설치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개발을 위해 기존 목포항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부두를 건설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성공하면 풍력 발전으로 직접 고용되는 일자리만 4000여개가 새로 생겨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각종 간접 일자리도 10여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임금부담을 줄이는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풍력발전을 좋은 일자리 전남형 일자리의 대표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만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남도 등과 함께 남해안 관광사업이 국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다른 세부사업들도 정부 사업과 2020년 국고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블루 이코노미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도민과도 공유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지금 광주는 '수리·달이' 열풍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수리·달이'가 대회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리·달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광주무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수달을 형상화한 것이다. 13일 기준 기념품 판매소 9곳의 관련 기념품 판매율은 3천% 이상 급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광주 남부대학교 정문에 마련된 기념품 판매소.

/연합뉴스

경기도, 中企 기술탈취 피해에 팔건어

지자체 최초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업은 ▲전문가상담장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해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장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되며 도는 전문가 채용이 확정되는 대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이 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특허공제 가입지원, 건당 5백만 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효자된 전북 로컬푸드... 월 77만원 소득 올려

(농업인 1인당)

상반기 직매장서 매출 486.7억 원

전북 로컬푸드가 지역 농촌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2019년 상반기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38개 매장(1,650품목)에서 486억7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464억원) 대비 4.7% 늘어난 것으로, 농업인 1인당 460만원, 월 77만3000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2019년 상반기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내 농업인은 10,488명,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종사하는 임직원수는 257명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10,488명은 우리 도 농업인 가구(96,780호, '17년 기준)의 10.8%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통계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구내 식당 지역농산물 공급도 농업인들의 매출증가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 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kbs 전주총국' 등의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로컬푸드가 지역농업인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봉태영 기자

김제시 '일자리정보 알림이' 개시

김제시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구직자간의 일자리 매칭 해소를 위해 '일자리정보 알림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시스템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직종·임금·근무형태별 등 맞춤형 일자리정보가 문자로 제공되며, 워크넷에 연결돼 구직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전북 김제=봉태영 기자

군산시, 전통시장 상인 건강도 챙긴다

찾아가는 기초건강검진 실행

군산시보건소는 생업으로 인해 건강에 소홀하기 쉬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사업 일환인 전통시장 상인 기초건강검진은 관내 전통시장 6개소(공설시장, 역전시

장, 신영시장, 명산시장, 주공시장, 수산물센터)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과 함께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수첩,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한 한방파스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수산물센터가 추가돼 현재까지 관내 6개 시장 상인 42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북 군산=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05:23 | 해질/19:53

7월 16일 (화) 음력 : 6월 14일

수도권 날씨 31 ~ -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0/31, 동두천 20/31, 가평 20/32, 파주 20/30, 서울 22/31, 양평 21/32, 수원 22/29, 용인 22/29, 평택 21/32, 백령도 19/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자전거 하이웨이’ 구축... “서울을 자전거 천국으로”

서울시 ‘보행 친화도시 신전략’ 가동 문정·마곡 등 5곳 자전거 특화지구로 3억원 투입...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서울시가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차도를 먼저 확보하고 공간이 남으면 보도를 만드는 산업화 시대 오랜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보행 친화도시 신전략’을 가동한다. 보행과 자전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후 순위로 나눔카, 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과 노상주차장, 가로공원 등을 고려하고 나머지 공간을 차도에 할애한다.

이와 관련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2시(현지시간) 1982년 시작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차 없는 거리(car-free)로 운영되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ía)’ 현장을 방문,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클로비아는 ‘자전거 길’(ciclocycle + via)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1982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보고타 주요 간선도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차 없는 거리 행사다. 승용차 의존도를 낮춰 교통혼잡과 대기질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빈부격차가 심한 콜롬비아에서 두 발과 두 바퀴 중심의 도로공간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등한 도시라는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보고타시의 의지가 담긴 곳이기도 하다.

보고타시 북부 5개, 중부 6개, 남부 5



콜롬비아 보고타 ‘시클로비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개 노선 총 120km 구간의 도로가 7시간 동안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롤러스케이트·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에게 개방된다. 현재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캐나다, 중남미 주요 도시에서 시클로비아를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 자전거가 차량과 분리되어 빠르고 안전하게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만의 전용도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항구 위 공간에 만든 코펜하겐의 자전거 고가도로 ‘사이클 스네이크(Cycle Snake)’, 열차 지상역사 상부 공간을 활용해 건설 예정인 런던의 ‘스카이 사이클(Sky Cycle)’ 처럼 서울형 자전거 하이웨이 CRT(Cycle Rapid Transportation)를 만들어 사통팔달 자전거 간선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자전거 도로망이 차도 옆 일부 공간을 할애한 불안한 더부살이 형

태였다면, 이번 CRT 구상은 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 시설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상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 혁신적 공간 활용으로 캐노피형 CRT, 튜브형 CRT,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린카펫 CRT 등 사람을 최우선하는 도로 공간이라는 서울시 교통철학과 도시 구조물의 특색에 부합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차로 높았던 가로변 자전거 도로로는 추진 중인 녹색교통지역 확대 및 도로 공간 재편과 연계해 과감히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높이로 조성한다. 차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강교량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자전거도로망과 5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도 조성한다.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조성 하겠습니다

Cycle Rapid Transportation

차도 한 편에서 자전거도로가 붙어있던 구조를 달리, BRT 상부 등 공간별로 맞춤형 입체적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 자전거만으로 서울의 간선축을 형성할 수 있는

혁명적 개념과 형태의 자전거 전용 하이웨이 CRT

무장애 · 안전 · 신속 · 편리한

자전거 하이웨이 (CRT)



서울시 자전거하이웨이(CRT) 개념도. /서울시



5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는 문정, 마곡, 향동, 위례, 고덕강일 5개 도시개발지구로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총 72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자전거도로율 4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따름이 대역소도 집중 설치해 주거지-업무시설-지하철역간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3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개소별·구간별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개시 4년 만에 누적 대여건수 2235만 건을 돌파하며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따름이는 내년 4세대 시대 개막을 앞두고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구릉지 거주 주민을 위해 전기따름이 1000대를 시범도입하고, 따름이 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주변에 입체형 자전거 스테이션 조성도 추진해 대중교통

과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한다.

‘차 없는 거리’도 전면 확대한다. 지상도로에서만 열린 ‘선(線)’ 단위 방식에서 ‘면(面)’ 단위로 확대, 관광객·쇼핑객으로 보행 수요가 많은 이태원 관광특구나 남대문 전통시장 등을 ‘차 없는 존(ZONE)’으로 특화운행을 추진한다. 추후 코엑스 주변 등 강남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잠수교, 광진교 등 한강교량도 정례적으로 ‘차 없는 다리’로 운영한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차 없는 거리도 신촌 물총축제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관광 명소화 한다.

박 시장은 “사통팔달 CRT를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통해 서울을 자전거 천국이자 확고하게 사람이 편한 도시,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범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잡아바, 결산 특집 테마관... ‘청년 기본소득’ 정책 인기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청년일자리·공공일자리 등 관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 올 상반기 결산 특집 테마관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잡아바’는 일자리 지원정책과 교육 정보, 채용정보, 창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24만3379명의 신규 회원이 등록돼 총 67만9820명이 이용하고 있다.

상반기 잡아바에 등록된 경기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 정보는 총 493건이었으며, 364만 3196명의 도민이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정책 ‘잡아바’ 홍보영상 캡처. /경기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정책은 ‘2019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었고, ‘2019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복지포인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의 관심 키워드는 ▲청년일자리 ▲공공일자리 ▲채용정보 ▲통합공채 등이었으며, 관심 정책 분야는 ‘생활지원’ 정책이 25.06%, ‘재직지원’이

20.29%, ‘구직지원’ 19.59%, ‘주거지원’ 18.7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 잡아바에 신규 개설된 ‘자기소개서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개설 두 달 반만에 약 600건의 컨설팅 요청이 있었으며, 컨설팅에 대한 이용자 평점은 4.75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쟁률 5.2대 1

3000명 모집에 1만5542명 지원 9월 20일 최종대상자 선발 발표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마감한 결과 3000명 모집에 1만 5542명이 지원해 경쟁률 5.2대 1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지원금으로 저축액을 두 배로 늘려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2000명을 모집해 1만4099명이 몰려 경쟁률 7대 1을 기록했고, 올해 모집인원을 1000명 늘렸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조회와 서류 심



사를 거쳐 오는 9월 20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꿈나래 통장’도 500명 모집에 2075명이 몰려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경쟁률은 2.6대 1이었다. /김현정 기자

‘문화누리카드’로 공연·여행 최대 80% 할인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8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뮤지컬 등 공연

부터 국내 패키지 여행, 찾아가는 방문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제휴프로그램을 10~8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발급기간(2월1일~11월30일) 내 전국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27만 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도서·기차표·음반 구매 등 문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제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결제 시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 가능하고 여행 프로그램의 경우 제휴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김현정 기자

약취방지시설 설치하면 최대 천만원 지원

서울시, 음식점·세탁소 등 설치비 지원

서울시는 음식점과 인쇄소, 세탁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 약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설치비의 70%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31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약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음식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인근 주민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도 복합약취는 평균 63%, 먼지는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산업] 하현희 LGU+ 부회장 취임 1주년 5G·유료방송 판 흔들다 05



Life

[사람] '백발의사' 이강안 원장 성천상 수상 청산도 16년 의술 L4



국내서 동남아까지... 태평양 따라 퍼지는 '글로벌 나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태평양물산

글로벌 의류제조기업 태평양물산은 이웃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본사가 있는 한국부터 해외 법인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동반 성장과 나눔을 통해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국내 이주여성과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태평양물산은 이주여성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태평양물산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실'은 본사 소재지인 구로구 지역 내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태평양물산 측은 이주여성이 소외감 대신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어교실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 위한 한국어교실 설립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해외법인 진출한 지역에 사회공헌

식수 사정 열악한 곳에 물탱크 기증 학교시설물 보수·예코백 기부도

한국어교실의 교육 과정은 4개월로, 연간 2~3학기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생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입문, 초급, 중급으로 나눈 수준별 수업이 제공되고, 연 2회의 한국 문화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올해는 총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누적 173명의 이주여성이 한국어교실을 졸업했다.

한국어교실을 졸업한 중국 출신 고숙매 씨는 "한국어를 몰라 2년간 집에만 지내다 한국어교실에 다니면서 한국 적응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같은 입장의 친구들과 함께 정작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씨는 졸업 후에도 수업에 참석해 중국인 수강생의 수학을 돕는 통역 봉사활동으로 한국어교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또, 태평양물산은 지역 아동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과 '구로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월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구로구 내 다문화 및 저소득가정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로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태평양물산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

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벽화 그리기 같은 재능 나눔이 필요한 곳에는 임직원이 직접 나선다. 초기에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벌였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개선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방과 후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대상을 변경했다.

◆ 글로벌 이웃에게 나눔과 사랑을

태평양물산은 해외 법인이 진출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1사1교', '해외 식수 개발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사1교'는 태평양물산의 해외 법인과 인근 학교가 자매결연을 하고, 학교시설 보수 및 교육 용품 기증 등을 통해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태평양물산의 가치를 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총 8개의 자매결연 학교에 TV, PC, 빔프로젝터, 전자 칠판, 에어컨, 선풍기, 도서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학교 시설물 보수 및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태평양물산 측은 "지난해에는 학교별로 지원이 시급한 물품을 우선 전달했다"며 "올해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늘려 지역 학생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식수 개발 활동'은 식수 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우물,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평양물산은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베트남의 옌중과 박장 지역에 물탱크를 기증했다. 수자원 전문 비영리 단체와 함께 설치한 물탱크는 학교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공용 시설로, 매일 1000여 명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스마랑 지역의 고등학교 2곳에 정수기와 수도시설을 갖춘 식수대를 기증했다. 식수대 덕에 학생들은 석회질이 없는 깨끗한 물을 마시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또한, 국내 임직원들은 2017년부터 해외 아동을 위해서 직접 만든 예코백을 기부하고 있다. 신입사원을 포함한 임직원이 의류제조기업의 역량을 발휘해 재봉틀로 직접 예코백을 만든다. 여기에 각종 학용품을 담아 국제 구호단체를 통해 동남아시아 아이들에게 보낸다. 예코백 만들기에 참여한 신입사원은 "아이들을 위해 예코백을 만들면서 나눔이 얼마나 쉬운지 깨달았다"며 "내가 잘하는 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 큰 사랑을 만드는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은 지난 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 전담팀을 신설했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다. CSR팀은 직원 복지, 사회적 기여, 친환경 설비 및 제품 적용 등 나눔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의 세부 운영을 담당한다.

문정국 태평양물산 경영지원부문 상무는 "태평양물산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역 사회를 면밀히 관찰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1 지역아동센터의 벽화를 그리고 있는 태평양물산 직원들.
- 2 태평양물산 직원들이 사회복지관의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 3 예코백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태평양물산 신입사원들.
- 4 태평양물산은 수자원 전문 비영리 단체와 함께 베트남 북동쪽 박장 지역에 물탱크를 설치했다.
- 5 베트남 박장 지역 물탱크 전달식에서 시음하는 아이들.
- 6 1사1교 교육 용품 전달식 기념 사진. /태평양물산